


1-28-2002

**건강한 교회 이론 적용을 통한 교회 성장 연구 : 알칸사 한인제일장
로교회를 중심으로**

Choon-Bae Park 박춘배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박춘배, "건강한 교회 이론 적용을 통한 교회 성장 연구 : 알칸사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HEALTHY CHURCH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RKANSAS

written by

CHOON BAE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o Shick Pai

Jung Suck Rhee

January 28, 2002

**A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HEALTHY
CHURCH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RKANSA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OON BAE PARK

JANUARY 2002

건강한 교회 이론의 적용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알칸사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배효식 교수

박 춘 배

2002년 1월

Abstract

Principles of Healthy Churches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rkansas

Choon Bae Park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es have rapidly grown for the past few decades. However, many of them are now experiencing plateau or decline in terms of their growth rate. Many churches were focused on the growth itself, while not paying attention to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healthy church needs to be introduced to correct such a prevalent tendency to overemphasize the church growth. Concerning the theme of healthy church, this study has reviewed the literature and conducted case studies for the selected churches.

This study consists of the six chapters. In the first two chapters,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y church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1) their philosophy of ministry; 2) focus on nonbelievers; and 3) small group based ministry.

Chapter 3 describes the situ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rkansas where I am currently serving at. Chapter 4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selected churches: Saddleback Community Church; Willowcreek Community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and Seoul Baptist Church of Houston. Interestingly, all of these churches have the very sam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in Chapter 2. The last two chapters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find ministry strategie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rkansas.

Theological Mentors: Hyo Shick Pai, Ph. D.

See Nam Kim, Ph. D.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연구하는 과정의 모든 순간들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성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여 주신 배효식 교수님, 전체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도움을 주신 김세운 교수님, 저의 멘토로서 격려와 도움을 주신 선배 이광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사역과 학위 공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과 장모 겸경수 권사님, 모든 순간 고락을 함께 하며 기도와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운 아내, 아빠를 늘 격려하는 딸 성은이와 아들 희상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계속해서 학업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협력한 알칸사 한인 제일 장로교회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2년 2월

박 춘 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3 절 용어의 정의	4
1. 교회의 성서적 정의	4
가. 구약에서의 교회	4
나. 신약에서의 교회	5
2. 건강한 교회의 기능적 정의	5
제 2 장 건강한 교회의 이론연구	9
제 1 절 교회 성장의 정의	9
1. 맥가브란의 견해	9
2. 피터 와그너의 견해	10
3. 론 켄슨의 견해	10
제 2 절 건강한 교회의 정의	11
1. 릭 워렌의 견해	12
2. 캔 햄필의 견해	13
3. 진 겐츠의 견해	14
4. 스티브 A. 매키아의 견해	14
5. 김연택의 견해	14
제 3 절 NCD(Natural Church Developement)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	16
1. 개요	16
2.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	17

제 3 장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의 상황과 진단	19
제 1 절 외적 진단	20
1. 지리적 상황	20
2. 직업적 상황	20
3. 종교적 상황	21
4. 교회적 상황	21
제 2 절 내적 진단	26
1.목회자 리더십 진단	26
2.목회환경 조사	27
3.교회 프로그램 진단	27
4.교회의 질병 진단	28
제 3 절 진단의 결과	29
1.교회성장의 요인	29
가. 은혜로운 설교	29
나. 끊임없는 전도	30
다. 기도중심의 목회	31
라. 장기목회	31
마. 좋은 교제(친교)	31
바. 좋은 관계	32
2. 교회성장의 방해 요인	33
가. 신학적 방해 요소: 죄	34
나. 교회적 방해 요소: 지도력	34
다. 자세적 방해 요소: 고정관념	34
제 3 절 요약	34
제 4 장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사례 연구	36
제 1 절 새들백교회	36
1. 교회 소개	36

2. 목회철학: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	37
3. 목회철학과 전략	39
제 2 절 윌로우크릭교회	41
1. 교회 소개	41
2. 목회철학: 구도자예배	42
3. 주요 사역	43
4. 교회 조직	45
제 3 절 사랑의교회	46
1. 교회 소개	46
2. 목회철학: 제자훈련	47
제 4 절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49
1. 교회 소개	49
2. 목회철학: 가정 교회	50
3. 가정 교회의 조직과 운영	51
제 5 절 요약	54
제 5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의 전략적 요소	58
제 1 절 목회철학	58
1. 목회철학의 중요성	58
2. 목회철학의 설정 과정	59
3. 목회철학의 핵심적 요소: 예배	59
제 2 절 전도	63
1. 전도의 정의	64
2. 전도의 방법	65
3. 예수님의 전도방법	67
4. 전도대상자와 전도전략	69
5. 전도전략과 교회성장	70
제 3 절 소그룹사역	72

1. 소그룹사역의 필요성	73
2. 이상적인 소그룹 모델	75
3. 건강한 소그룹의 요건	76
4. 건강한 소그룹의 사역 내용	77
5. 소그룹사역의 유익	78
 제 6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전략의 실제적 적용	80
제 1 절 목회철학: 예배	81
1. 왜 예배를 목회철학으로 하는가?	81
가. 예배형태	82
나. 예배와 음악	83
다. 예배와 기도	83
라. 예배와 설교	83
제 2 절 불신자 전도	84
1. 전도훈련의 동기	85
2. 전도훈련의 목적	85
3. 전도훈련의 방법	85
4. 전도의 장애	87
5. 우리 지역의 전도 전략	88
제 3 절 소그룹사역	91
1. 소그룹의 정의	91
2.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	92
3. 소그룹의 전략	98
 제 7 장 결론	98
제 1 절 논문의 요약	98
제 2 절 연구의 성과 및 유익	100
제 3 절 제안	100

참고문헌	101
VITA	104

제 1 장 서 론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교인의 급성장으로 건물과 규모가 대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교회가 커짐에 따라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기구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래 전부터 특별한 몇몇 교회를 제외한 한국 교회 전체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교회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대형 기도원을 짓는다든가 전시적인 대형집회만을 추구하는 외형적인 관심만 계속한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물량적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이며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이 시급하다.

필자가 교회 성장의 전략의 하나로서 건강한 교회의 목회관에 관심을 갖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자연적 교회 성장론”에 대한 강의와 저서들을 접하고부터이다. 건강한 교회, 바로 이것이 21세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지역 같이 작은 도시 작은 교회에서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회철학이라 생각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제 1 절 연구의 목적

알칸사 장로교회는 미국의 중소도시에 속하는 알칸사 리틀락에 위치해 있다. 리틀락에는 많은 인구가 있지만 한인의 경우는 400여명뿐이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이런 지역 내에 한인교회가 4개나 된다. 현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70-80퍼센트이지만 전체 한인 인구의 90퍼센트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지역적인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갱신하고 사역을 활성화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필자는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건강한 교회 이론이 기존의 교회성장 이론과 달리 알칸사 한인 장로교회와 같이 한인이 적고 교인수가 적은 교회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는 건강한 교회 이론을 연구하고 실제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을 관찰, 연구, 분석, 평가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한다. 동시에 알칸사 한인장로교회의 내적인 상황과 그 외적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건강한 교회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알칸사 한인 장로교회의 여건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에 대한 목회전략을 세워 봄으로써 이 연구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지역의 도서관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며, 건강한 교회 이론과 관련해서 출판된 책들과 이에 대한 연구 논문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룬 실제 사례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를 견학하거나 건강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이론의 가치와 그 역할이 새롭게 평가될 것이며, 연구자 개인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명감이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알칸사 한인장로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한 미국내의 소형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흥전략이 세워질 것이다.

각 장에서 다루게될 내용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그 동안 연구되고 발전되어온 건강한 교회 이론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제시할 것이다. NCD를 중심으로 다른 이론들을 비교, 분석, 평가, 그리고 종합하게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알칸사 한인장로교회의 상황(context)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알칸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터뷰 등으로 자료들 만들게 될 것이며, 한인들을 위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로 인정되는 2개의 미국교회와 2개의 한

인교회를 모델교회로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목회적 차원에서 연구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알칸사 한인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제 5장의 연구에 근거한 목회전략(strategy)을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를 요약하고 이 연구를 통해 얻게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동시에 이 연구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현장연구를 택하였다. 문헌적 연구로는 건강한 교회를 다룬 서적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와 초대교회를 살피고 교회 성장학 관점에서 교회성장과 건강한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장연구로는 자연적 교회성장연구원에서 건강한 교회로 지정한 네 교회를 직접 탐방하여 교회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휴스턴서울 침례교회의 세미나와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 교회들의 실제 사역들을 살펴보았다.

현장연구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설립과 역사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및 그 교회의 주요사역 내용과 장단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범위는 문헌적 연구에서는 성서 신학적 측면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연구하여 건강한 교회의 기능적인 면을 살폈고, 조직신학 관점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교회성장학 관점에서는 맥가브랜과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론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최근에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필자는 건강한 교회로 지정된 네 교회를 직접 탐방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교회의 목회 전략을 제시했다.

교회의 성장은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이 성장만을 목표로한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교인들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성장한 모델교회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교회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 이것은 모든 교회가 성취해야하는 교회의 과제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질적 성장은 물론 양적 성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한다.

제 3 절 용어의 정의

1. 교회의 성서적 정의

가. 구약에서의 교회

구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용어는 ‘카할’과 ‘에다’이다. ‘카할’은 “부른다”(to call)라는 동사를 어근으로 하는데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시내 산에서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카할’이다. 구약성경에서는 ‘회중’이라고 번역하여 사용되었다.¹⁾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²⁾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다’ 역시 원래는 ‘카할’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볼 때 ‘에다’는 ‘카할’보다 앞서는 말로서 “택하다”라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에다’는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에다’는 70인역(LXX)에서는 보다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³⁾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과정을 거쳐서 ‘에다’는 칠십인경에서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되었고, 신약성경에 와서 이 말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집)을 의미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구약성경에서 ‘카할’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공동체)을 의미하는 말로, ‘에다’는 ‘쉬나고게’로 번역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 새성경사전(New Bible Dictionary),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150.

2) Paul E. Engle, 당신의 예배생활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정광욱 역 (서울: 나침반사, 1987), 26.

3) Ibid., 56.

나. 신약에서의 교회

신약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데 2가지 단어가 사용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70 인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와 '쉬나고게'(συναγωγή)이다.

'에클레시아'는 '카할'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칠십인역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신 4:10, 9:10; 대하 6:3, 12). 다만 신약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는 헬라문화권에서의 일반적인 모임, 곧 가정으로부터 어떤 공적인 장소로 소집된 시민의 모임을 의미한다.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인 용어로만 국한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어디에서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였다.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의 '카할'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로부터 어떤 임무를 분부 받기 위하여 모인 무리를 의미하지만,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는 비단 종교적인 집회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세속적인 모임 혹은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⁴⁾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교회 즉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의미를 다섯 가지로 말하였다.⁵⁾ 첫째로, 이 단어는 예배를 위한 모임에 상관없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 곧 지교회를 지칭한다(행 5:11; 11:26; 고전 11:18; 14:19; 롬 16:4; 고전 16:1; 갈 1:2; 살전 2:14). 둘째로, 어떤 경우에는 가정교회 즉 어떤 개인 집에 있는 가정교회를 지칭하기도 한다(롬 16:23; 고전 16:19; 갈 4:15; 몬 2 등). 셋째로, 티센돌프(Tisschendorf)의 말이 옳다면, 일단의 교회들, 곧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지칭한다(행 9:31). 넷째로,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몸의 조직을 지칭한다(고전 10:32; 11:22; 엡 4:11-16). 다섯째로, 이 단어는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몸을 가리킨다(엡 1:22; 3:10; 골 1:18; 24).

2. 건강한 교회의 기능적 정의

건강한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초대교회

4)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하),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223.

5) Louis Berkhof, 조직신학, 교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vol. 6, 15-17.

에 나타난 모습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우신 교회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친히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야말로 누구나가 본 받아야 할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7).⁶⁾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다섯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예배와 양육과 제자화,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및 전도와 선교가 그것이다.

먼저, 초대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발적인 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행 2:43).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시에 간절히 기도했다(행 2:42).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고 기도를 통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행 2:43; 3:1-10).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찬양이 있었다(행 2:47).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행 2:42). 그들은 서로 기쁨의 교제가 있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었다(행 2:42). 그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가졌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뜨거운 찬양과 기도, 성도간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성찬 등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6) 김호용,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2), 95.

둘째로, 초대교회는 양육과 제자화에 힘썼다.⁷⁾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주님을 새로 영접한자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다.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도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한번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였다(행 2:41).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칠십인역인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그들은 신앙이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자라갔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행 2:44,45).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각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었고, 이로 인해 그들 중에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행 4:32-37).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을 집사로 세워 이일을 감당하게도 하였다(행 6:1-7). 아무튼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고후 8:2; 9:5, 12).

넷째로, 성도의 교제 역시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양육, 구제와 봉사, 선교 등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타났다. 그들은 예배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교제하였으며,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성도간 이웃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다섯째로,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썼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2). 초대교회는 그 당시의 유대종교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였다. 진 게츠(Gene A. Getz)는 이와같은 복음 전도를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⁸⁾로 보았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무슨 전략을 세우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동

7) Michel Green, 초대교회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11-112.

8) Gene A. Getz, 현대교회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41.

원한 적이 없다. 사도들이 가르쳐 준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 성도 간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에 힘썼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는 부흥과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행 2:47).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였다. 건강한 교회였기에 말씀을 실천했고, 건강한 교회이기에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교회성장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 2 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론적 연구

제 1 절 교회성장의 정의

교회성장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한다.

1. 맥가브란의 견해

‘교회성장’이란 말은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맥가브란은 감리교회 목사(?)였던 제럴 어스컴 피켓의 영향으로 교회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2세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활화산처럼 일어났던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교회성장을 가져왔고 많은 변화된 문화와 시대 속에서도 성장했음을 인식하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회성장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교회성장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맥가브란은 1930년대 초기에 그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교회성장 연구에 뛰어들었고, 1954년 아프리카 7개국을 방문하여 그 곳의 20개 선교 단체에 의하여 수립된 교회들을 연구한 것을 아프리카에 실험해보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ie of Missions)라는 책을 발간함으로써 교회성장학은 시작되었다.⁹⁾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의 이해(Understanding Church Growth)에서 교회성장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의한다. 사람은 충성심이 없이는 어떠한 봉사

9) Donald McGavran and George G. Hunter III., 교회성장학, 박은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9.

나 노력이나 수고도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충성심이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며 이러한 충성심을 보이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성장이 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성장이란 “잃은 양을 찾아내어 우리 안에서 잘 목양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고 또한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생활을 하므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¹⁰⁾고 정의하였다.

2. 피터 와그너의 견해

와그너는 교회성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¹¹⁾으로 정의하였다.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눅 19:10) 오신 것이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선한 목자의 마음(눅 15:4-6)이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보다 더하리라”(눅 15:7)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¹²⁾

그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는 살아 있는 표적을 가지고 있다”¹³⁾고 주장한다. 그는 특별히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⁴⁾ 적극적인 사교방식을 가진 목사와 평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 줄 아는 목사, 전도를 위해 규모가 넉넉한 교회, 축제적인 예배 및 모임, 모임의 동질화, 효과적인 전도, 우선 순위 결정 등이 그것이다.

3. 론 젠슨의 견해

론 젠슨은 “교회성장이란, 한 지역교회가 질적으로, 수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10)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31.

11) C. Peter Wagner, 교회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0.

12) Ibid., 258-259.

13) Ibid., 33.

14) Ibid., 252.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¹⁵⁾고 정의한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교회 성장학에 있어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의 인간, 즉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서의 성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건물이 확장되거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 절 건강한 교회의 정의

한국의 교회성장은 실재적으로 이미 1980년대 후반기부터 둔화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한국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간하배 박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된 요인 중의 하나로 지나친 성장주의적 목회 사역을 꼽았다.¹⁶⁾

21세기를 맞으면서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릭 워렌 목사가 말한 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워렌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성장이 아니라 교회건강이다.”¹⁷⁾라고 역설한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열매를 맺으며, 건강한 교회는 지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교회는 70년대부터 정체상태에 들어갔던 미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새로운 교회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Ron Jenson, 생동하는 교회성장, 금병달 역 (서울: 순출판사, 1994), 8.

16)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안양: 대한신학대학원출판부, 1999), 8에서 재인용.

17)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회,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25.

1. 릿 워렌의 견해

릿 워렌 목사는 교회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그의 책 새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라고 믿는다.”¹⁸⁾라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참된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건강에 달려 있다. 즉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건강하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100대 교회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교회를 다음과 같이 7가지 종류로 구분한다.¹⁹⁾

①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서 변화보다는 과거의 것을 되풀이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②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면서 지도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만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③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모든 관심과 이슈가 재정이나 예산 등에 있다.

④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모든 에너지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사용된다.

⑤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건물을 사고 유지하는 일, 시설 보수 등 건물에 모든 관심이 있다.

⑥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항상 행사로 바쁜 교회이다.

⑦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불신자나 전도에 관심이 많은 교회이다.

그리고 기존의 이와 같은 유형의 교회들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건강한 교회, 곧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제안한다.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

워렌은 교회의 존재목적을 5가지로 말한다.²⁰⁾

목적1.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예배).

18)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5.

19) Ibid., 93-98.

20) Ibid., 122-124.

목적2.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사역).

목적3. 가서 제자를 삼으라(전도).

목적4. 세례를 주라(교제).

목적5. 지키도록 가르치라(훈련).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목적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예배하고, 준비시키고, 전도하기 위해 존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로서 결실의 삶을 살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그들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는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모든 변화 속에서 사역하기에 가장 잘 구비된 교회이다.²¹⁾

2. 캔 햄필(Ken Hemphill)의 견해

캔 햄필은 그의 책 안디옥 이펙트(The Antioch Effect)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방법이나 모델, 프로그램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맺게 되는 초자연적 열매이며 교회의 건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을 제시한다.²²⁾

① 영적 능력 (Spiritual Power):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달려 있다. 초자연적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② 역동적인 예배(Dynamic Worship):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예배가 항상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③ 기도(Prayer): 한국교회와 제3세계에서 발견되는 교회성장은 기도에 달려있다.

④ 목회지도력(Leadership):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비전과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⑤ 가족 공동체(Membership):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며, 의미 있는 교제를 갖게 해주는 교회다.

21)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7.

22) Ken Hemphill, 안디옥이펙트, 이명희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22.

⑥ 비전이 뚜렷한 교회(Vision): 건강한 교회는 비전이 뚜렷하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었다(행 13:2).

⑦ 전도의 열정(Evangelism):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와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이다.

⑧ 평신도를 훈련하는 교회(Training): 교회가 훈련사역을 성취하면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지고, 둘째로는 교회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3. 진 A. 겐츠의 견해

진 달라스신학교의 교수이자 텍사스주의 플레이노시에서 펠로우쉽 교회를 담임하는 겐츠 박사는 그의 책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The Measure of Spiritual Maturity)라는 책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원리를 제시한다.²³⁾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해야 하고, 믿음 사랑 소망이 표현되어야 하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영생의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여야 하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며, 교제와 예배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고, 베품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고, 전도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며, 가정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고, 개인적 신앙성숙에 헌신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스티브 A. 매키아의 견해

매키아 목사는 비전 뉴잉글랜드의 총재이며, 고든콘웰 신학교의 교수로 그의 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Becoming A Healthy Church 10 Characteristics)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다음의 10가지 원리를 제시한다²⁴⁾: 말씀과 기도; 사랑과 포용과 죄사함; 관계의 신실성; 성장에 대한 지속적 열정; 전통예배에서 현대예배로의 전환; 기도; 관계 중심적 사역; 간증의 활용; 봉사; 네트워킹.

5. 김연택의 견해

김연택 박사는 대한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건강한 교회에 관한 서적을 씨리즈로

23) Gene A. Getz,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88).

24)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출간 보급하여 한국교회에 건강한 목회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수이자 목회자이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건강한 교회의 이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²⁵⁾

첫째,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이다.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고, 건강한 교회가 올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건강한 목회자 없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목회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김연택은 다섯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는, 목회의 기초 곧 인격이다. 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격에 달려 있다.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인격과 중심이지 재능이나 조건들이 아니었다. 목회사역은 프로그램이나 재정, 목회의 기술이나 교회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의 인격과 자질이 중요하다.

둘째는, 목회의 본질 곧 봉사과 섬김이다. 영어의 “minister”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다. 목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참된 종의 모습, 섬기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목회자로서 아비와 같이 교인들을 섬긴 것을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다(고전 4:14-15).

셋째는, 목회의 참 동기 곧 사랑이다. 목회자의 사역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요 21:15-17).

넷째는, 목회의 도구 곧 말씀과 기도이다. 목회자의 우선적인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사역을 통한 능력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다섯째는, 목회의 모델이다. 목회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복음서를 자주

25) 김연택, 한국교회 목회자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본과 가르침을 목회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한다는 말이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건강해야 하고, 목회자 자신이 건강한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회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절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성장)의 건강한 교회 이론

20세 말에 접어들면서 ‘교회성장’에서 ‘교회건강’이라는 관점으로 목회를 바라보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히 독일의 자연적교회성장연구소의 소장인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지난 10여 년 동안 32개국의 1000여 교회를 조사하여 얻은 420만개의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문화나 신학적인 배경,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1. 개요

슈바르츠는 자신의 교회 성장이론을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이라고 부른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장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고, 적당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성장은 스스로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슈바르츠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한 어떤 교회의 모델을 찾아 지역교회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추출하여 그 원리를 지역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교회의 성장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열매가 증명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개 교회가 처한 독특한 문화와 환경에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와 신학적 배경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성장의 원리를 추출하여 지역교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개별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교회를 보고 도전 받는것도 좋지만 모든 교회의 성장에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여 지역교회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모델을 구축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2.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

슈바르츠는 자신의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²⁶⁾ 이러한 질적 특성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있는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슈바르츠가 주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 특성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Empowering Leadership)이다. 임파워링 리더십이란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하여 훈련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평신도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리더십은 과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목표지향적이기보다는 관계지향적으로, 권위주의적이기보다는 팀사역 위주의 지도력이 되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은사 중심적 사역(Gift-oriented Ministry)이다. 성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도들의 은사활용 여부이다. 이 특성은 “하나님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 뜻하는 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부분은 줄어드는 대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사람들도 은사를 따라 사역하게 되면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특성은 열정적 영성(Passionate Spirituality)이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뜨거운가? 그들이 기쁨과 헌신된 삶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열정이 있다. 열정은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며 사는 것이다.

네 번째 특성은 기능적 조직(Functional Structure)이다. 조직이 살아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조직이 죽어 있는 교회는 쇠퇴한다.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장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

다섯 번째 특성은 영감 있는 예배(Inspiring Worship)이다. 성장하는 교회를 결정

26)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민, 정진우, 박동건, 오태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짓는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감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영감 있는 예배가 드러지는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여섯 번째 특성은 전인적 소그룹(Holistic Small Group)이다. 소그룹이 교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토론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경의 메시지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까지 가는 전인적인 소그룹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특성은 필요 지향적인 전도(Need-oriented Evangelism)이다. 교회성장의 열쇠는 지역교회가 전도의 노력을 불신자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랑의 관계(Loving Relationship)이다. 성장하는 교회는 매우 높은 사랑지수를 보여준다.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장기적인 잠재력 사이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

제 3 장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의 상황과 진단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 현상과 그 결과로 나타난 도시 대형교회의 탄생과 농촌교회의 몰락, 해외선교의 절실성, 교인들의 요구 및 가치관의 변화, 종파와 교파의 이해집단간의 대립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교회환경의 변화는 교회행정이나 교회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시련과 도전을 요청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역사에 비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신앙의 부흥을 이룩하였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계선교의 꿈을 알차게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소리 역시 적지 않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탄식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급박하고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먼저는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들의 목회를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진단하는 일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진단이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알칸사 제일장로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 진단은 지리적, 역사적 상황을 진단하는 외적인 진단과, 건강한 교회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목회 환경 및 목회자 리더십을 진단하는 내적인 진단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 1 절 외적진단

1. 지리적 상황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이하 '제일장로교회'라 칭함)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에 소속되어있는 교회로 2001년 현재 교회 설립 9주년을 맞는다. 제일장로교회는 미국의 중남부의 알칸사주에 위치해 있다. 알칸사 전체 인구는 약 250만 명이며 면적은 134,892 km²이다. 알칸사는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다.²⁷⁾ 북쪽으로는 오클라호마(자동차로 8시간), 동쪽으로는 댄퍼스(3시간), 서쪽으로는 달라스(5시간), 남쪽으로는 휴스턴(8시간)이 인접해 있다. 주의 수도는 리틀락(Little Rock)인데, 장로교회는 이 리틀락 시의 중심부인 University Rd에 위치해 있다.

리틀락의 인구는 약 36만 정도이며(2000년 현재), 한인 인구는 약 400여 명으로 추정된다(AT&T의 한인전국인구분포도 참고). 필자가 이곳에 온지는 9년 가까이 되었는데 한인들의 숫자는 크게 증감없이 일정한 편이다.

2. 직업적 상황

이 지역의 주산업은 농업으로 주로 쌀과 목화재배가 많다. 알칸사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수목으로 덮여 있으며 수많은 호수와 하천, 그리고 삼림 지대가 풍부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우리 지역은 주변에 공장이나 산업시설 혹은 기간 산업체 등이 거의 없어 산업 발전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인들이 종사하는 주요 직업은 옷가게, 흑인들의 미용에 필요한 Beauty Supply 업이 많고, 최근에는 Gas Station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특별히 리틀락 내에는 동양 마켓 한군데 외에는 한인을 위한 Business는 하나도 없다(예: 식당, 약국 등). 한마디로 한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중 다수는 생활의 불편함과 외로움, 적절한 직업의 부재와 같은 현상 때문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

27) 최혁순, 미국여행 (하) (서울: 을지출판사, 1990), 165.

3. 종교적 상황

우리 지역에 한인들을 위한 다른 종교는 없다. 그러므로 종교적 상황은 자연히 지역교회의 상황이 된다. 우리 지역에는 교민 400여 명에 교회가 4개 있다 (장로교회 1; 침례교회 2; 감리교회 1). 한인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장로교회를 포함한 전 교회가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인구의 증감이나 이동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교회의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히 외적 성장(숫적 성장)보다는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내적 성장(질적 성장)으로 목표를 가지게 된다.

4. 교회적 상황

가. 교회 소개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는 1992년 10월 11일 이 지역의 몇몇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민사회 내에서 복음주의적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해 11월 초대 한상권 목사가 부임하여 5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했으나 여의치 못해 사임을 하고, 1993년 4월 필자가 이곳에 부임하였다. 당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주일 낮 예배에 20여 명 정도 모여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1992년 교회주보 참조).

예배 처소는 St. Andrew 미국 장로교회(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음)를 임대하여 오후 1시에 모여 주일 낮 예배를 드렸다. 필자는 부임하자마자 몇 가지 목회방침과 목표를 정하여 제시하였다. 목회방침은 1)하나님 중심, 2)성경 중심, 3)교회 중심으로 정하고, 목회 목표는 1)바른 신학, 2)바른 교회, 3)바른 생활로 정하였다. 모든 목회 사역은 성경말씀대로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목표로 삼았고,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 현재의 교세

(1) 교인 구성

교역자로는 담임목사와 2명의 교육전도사가 있고, 시무장로 2명과 은퇴장로 1명, 권사 9명, 안수집사 1명, 서리집사 40여 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장년 등록교인수는 100명 정도이고, 매주 주일 80명의 장년과 3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하고 있다.

(2) 예배 공간

18,000 평방 피트의 자체 성전에, 본당과 2개의 소예배실, 친교실, 사무실, 20여 개의 교실과 1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3) 교회의 조직

교회의 조직은 당회, 제직회, 교회성장위원회를 비롯하여 15개의 부서와 3개의 선교회와 성가대와 찬양팀, 8개의 구역이 있다.

다. 교회 성장의 역사

제일장로교회의 역사는 태동기와 성장기로 양분할 수 있다.

(1) 태동기: 교회 개척에서 성전구입 전까지: 93년-96년

태동기는 한마디로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교회를 창립하여 모인 구성원이 대부분 침례교회 교인이거나, 침례교회 생활에 젖어있는 사람이었다. 필자는 장로교회 목사이므로 마땅히 장로교회 정치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인내와 사랑, 지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잘 화합되어갔고 또 성도들도 잘 따라주었다.

부임 이듬해인 1994년에 교단 가입을 결정하였다. 신학적인 배경이 같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인 94년 년초부터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훈련을 시작하였다. 주일 낮 예배는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설교를 했고, 절기에는 절기설교를 주로 했으며, 수요일예배에는 성경을 1권씩 강해에 나가는 강해 설교를 하였다. 물론 매일 새벽기도회를 드렸고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자훈련을 실시했는데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훈련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필자는 미주 제 1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수료했음).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도훈련을 강조하였다.

장로교회의 약점 중의 하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말씀만을 강조해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성이 약해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부터 기도를 강조하였고, 또한 힘써 기도하였다.

기도훈련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매일의 새벽기도회와 일년에 두세 차례 갖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 주축을 이룬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3월과 9월에 가지는데 교회 상황에 따라 더 가지기도 한다.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로 한다. 이렇게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은 평상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장수가 짧은 성경을 정해 그 성경 전체를 강해하기도 하고, 혹은 주제를 정해(예: 사랑, 은사, 고난, 능력 등)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한다. 고난주간에는 보통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게 한다.

세 번째 형태는 금요기도회이다. 금요기도회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통성기도와 찬양과 주일을 위한 중보기도가 그것이다. 금요기도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전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선포자인 담임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봉사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한다.

필자는 제일장로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서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썼고 이러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제일장로교회는 95년 1월부터 해외선교를 시작하였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선교에 힘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 지역 주민이 400여 명 정도로 전도대상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역 주

민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거나 소속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지역 전도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장로교회는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게 선교에 힘쓰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처럼 해외 선교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처음 교회차원에서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물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이기란 쉽지 않았다. 헌금을 보내는 지역의 선교사님을 본적도 없었고, 선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비를 보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방문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교우들이 점진적으로 선교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를 하면서 깨달게된 사실은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해부터 타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이주하여 왔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일장로교회는 현재 8곳의 해외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제일장로교회가 지금까지 돕고 있는 선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한국의 합동 신학교; 2)태국의 정도연 선교사; 3)파키스탄의 문모세 선교사; 4)인도네시아의 김철용 선교사; 5)알바니아의 김용기 선교사; 6)도미니카의 최정희 선교사; 7)몽고의 천강민 선교사; 8)중국의 성진숙 선교사.

초창기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심방사역일 것이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는 중소도시로 불린다. 주도가 있는 리틀락의 미국인 인구는 36만명 정도로 적지 않으나 한인 인구는 약 400여 명 정도로 도시 규모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 지역은 정말 사람이 귀한 곳이다.

전체 한인 400여 명 중에 당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네 교회 다 합쳐도 200여 명이 안 되었다. 그래서 세운 전략은 사람들의 영혼을 찾아 나서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심방목회에 집중하였다. 캐논 L. 캘라한은 심방과 선교, 교회 성장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약 20시간을 교인을 위한 심방에 쓰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였다.²⁸⁾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전도 혹은 심방이 초창기 사역의 핵심으로 삼게 된 것이다.

심방을 하다보니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이 제법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 등의 이유로 교회출석을 중단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미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을 찾아 시골구석구석 찾아 나서다보니 때때로 만난 사람가운데는 한인을 15년 혹은 20년 동안 만나 보지 못해 우리 말까지 서투른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지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가니 한사람씩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가정 심방 외에도 사업장 심방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하루 종일 사업장에 있는 성도들은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사업에 종사하기에 가정으로 심방을 가는 것보다는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사업장의 심방은 외로움을 달래 주기도 하고 사업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심방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초기 몇 년간은 이와 같은 심방중심의 목회를 하였다.

이러한 목회 3년만에 교회의 숫자는 3배로 증가하여 주일 출석인원이 70여 명 되었고 교회는 제 2의 성장을 위해서 자체성전을 구입하기로 하고 준비를 착수하게 되었다.

(2) 성장기: 성전구입부터 현재까지: 1996-2001

제일장로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성전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1995년 연말에 성전구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였다. 먼저 성전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전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당시 3가지 논의가 있었다. 1안은 땅을 구입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2안은 팔려고 내놓은 미국교회를 사는 것이고, 3안은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성전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처음 빌려 사용했던 미국교회에서 불과 1 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학교 건물을 성전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 건물은 본래 Business College 건물이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닫고 팔려고 내놓은지 이미 몇 년이 지난 건물이었다.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는 현재의 교회가

28) Kennon L. Callahan, 성숙한 교회의 12가지 열쇠, 권오서 역 (서울: 풍만, 1988), 64.

된 이 건물이 위치상 리틀락에서 가장 중심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둘째는 공간이 넓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이라 주일학교나 소그룹 모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교실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한번에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이 있어서 교회 성장과 장래를 위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는 우리가 준비한 재정이 이 건물을 사는 데 매우 적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는 1996년 2월에 1.8에이커 (약 18,000 평방피트)의 학교 건물을 약 30만 불에 구입하였고, 그해 9월까지 교회 건물로 재수리했으며, 그해 10월에 안수집사 2명과 권사 2명을 피택하여 봉헌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을 우리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급기야 98년에는 주일 출석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이듬해인 99년 6월에는 장로 3명, 안수집사 1명을 피택하고 임직하여 명실공히 조직교회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제 2 절 내적인 진단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이며 순신대 교수이자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인 명성훈 박사 교회성장을 위한 내적 진단 방법을 여섯 가지로 지적하였다.²⁹⁾ 개 교회 성장사 진단, 목회자 리더십 진단, 사역자 분석, 목회 환경 조사, 교회 프로그램 진단, 교회 질병 진단 및 처방이 그것이다.

1. 목회자의 리더십 진단.

첫째는, 목회자의 리더십 진단이다.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목회자의 리더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기획력: 통계에 의하면 계획을 세우는 20퍼센트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나머지 80퍼센트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20퍼센트의 사람들 가운데도 특히 문서화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서로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29) 명성훈, 교회 성장 반드시 됩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7), 160.

성공하는 확률이 80퍼센트 이상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문서화 시켜 보고 또한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 계획안까지도 만들어 보아야 한다. 계획안들을 충분히 준비한 뒤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일을 추진한 후에는 사후 평가작업을 통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창의력: 현대는 전문화시대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이다. 목회적 교양과 신학적 지식은 기본이며, 그 외에도 자신만의 색깔과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 자신만의 이미지, 자기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③ 설득력: 목회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 접촉, 상담, 대화 등을 통해서 목회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득해야 한다.

2. 목회환경 조사

둘째는, 목회환경 조사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환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환경조사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외부 환경조사이다. 이 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적이다. 설문지에는 직업, 성별, 연령 등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기독교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인식도, 타종교와 기독교의 비교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환경조사는 교인들의 심리적 욕구와 종교적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목회환경 조사를 통해서 목회전략이 세워지고, 목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3. 교회 프로그램 진단

셋째는, 교회 프로그램 진단이다. 교회에는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구제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①예배: 준비된 예배인가? 모든 순서가 부드럽게 진행되는가? 실내온도, 조명은 어떠한가? 설교는 어떤가? 찬양은 어떠한가? 찬송가 선택이나 주보는 어떠한가?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예배의 전체를 진단하는 것이다.

②교육: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인가? 비효과적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교회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③봉사: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현재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봉사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④친교: 친교는 교회 차원보다 대부분 각 조직이나 소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조직이나 그룹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⑤설교 및 전도: 가장 효과를 본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성공이유를 찾아 보아야 한다. 만일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⑥구제: 목회자는 이벤트 기획에 탁월해야 한다. 구제나, 봉사나, 다른 자선활동을 할 곳을 찾아 신자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구제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4. 교회의 질병 진단

넷째는, 교회의 질병 진단이다. 현대 사회학은 의학의 병리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사회병리학'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최근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병리학'을 탄생시켰다. 사회 병리학이 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해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교회 병리학은 교회의 질병을 찾아내어 처방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교회 병리학적 현상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①고령화증: 교회교인의 연령층이 노화되는 현상이다.

②친교 과잉증: 너무 친교위주의 모습을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는 친교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친 친교는 교회 성장을 방해한다. 이 질병에 걸리면 새신자의 정착이 어려워지고 교회 성장이 둔화된다.

③열정 감퇴증: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상태를 말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 증세는 신앙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들 가운데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다. 이 현상은 영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④시설 협소증: 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해 각종시설 및 주차장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을 임대 하든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⑤영적 발전 제한증: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영적으로 영양 실조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해야 한다.

제 3 절. 진단의 결과

여기서는 내외적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성장요인을 알아보고 동시에 교회성장의 저해요인이 무엇이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로 한다.

1. 교회 성장의 요인

가. 은혜로운 설교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의 예장 합동 소속의 목사(106명)와 장로(63명), 평신도(1680명) 등 1천 8백 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장로 교단에서 목사의 역할 중 가장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67퍼센트가 설교라고 답했고, 12퍼센트가 기도라고 답했다.³⁰⁾ 설교는 기존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최우선이 된다. 교회 성장의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목회자의 설교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설교는 뒷전으로 하고 교회 성장을 해보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목회자가 진정 교회 성장을 원하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 렉 워렌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30) 김연택, 21세기전도와 건강한 교회, 227.

위한 비결은 청중 중심의 설교에 있다고 지적한다.³¹⁾ 특별히 그의 설교는 비교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의 책 설교분석 리포트에서 비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8가지 설교 작성원리를 말했다.³²⁾

- ①청중의 삶에서 설교 주제를 끄집어라.
- ②청중의 실제적 필요를 성경에서 찾아 제시하라.
- ③구체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작성하라.
- ④긍정적으로 표현하라.
- ⑤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을 사용하라.
- ⑥단순하게 사용하라.
- ⑦일방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일대일로 대하듯 하라.
- ⑧흥미 있는 표현방법을 사용하라.

많은 한국교회 설교가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이나 명령형이 많다. 이제는 청중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건강한 설교를 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설교를 들은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다.

나. 끊임없는 전도

교회사역의 시작은 불신자 전도에서부터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백성으로 성숙시켜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과 끝이 있다. 현재 미국교회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교회이다.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는 1년에 1-2회 특별 전도집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말 전도주일, 전도특별행사, 전도훈련, 전도설교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 제일장로교회가 한인들이 적은 이 지역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전도한 결과다.

31) 김의종, 릭 워렌의 설교 분석 리포트 (서울: 한국 강해 설교학교, 1999), 48

32) Ibid., 85-138.

다. 기도 중심의 목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제일장로교회도 매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매주 금요 철야기도회와 구역예배를 통해 기도하기를 힘쓴다. 고난주간에는 40일 특별기도회를 가지고, 3월과 9월 두 차례의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그리고 신년 특별기도회 및 기관별 기도회, 산상 기도회 등 가능한 보다 많은 기도 기회를 제공하여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라. 장기 목회

새들백 교회의 릭워렌 목사님은 개척을 하기 전 미국에서 가장 큰 100개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거기서 얻은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가 한곳에서 장기목회를 한 교회가 건강하고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다.³³⁾ 라일 살러 목사도 “목사가 한 곳에서 장기간사역 한다고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나 2-3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³⁴⁾고 강조한다.

교인들은 장기간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지도력을 따르기를 원한다.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를 따르기를 원한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한 목회자가 한곳에서 평생을 사역하기 때문이요, 이민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쉽게 사역지를 바꾸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할 수 있으면 한곳에서 장기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이런 곳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마. 좋은 교제(친교)

초대교회는 좋은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행 2:42).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기존신자보다 새 신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구별하는 것이 없고 차별도 없었다(행 2:45). 그리고 하나가 되어 좋은 교제를 했다.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는 처음부

33) Rick Warren, 새들백 교회이야기, 41.

34) 김연택, 목회와 교회성장, 94.

터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교를 나누는 데 힘썼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한국식당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는 처음부터 늘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다. 이것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하며 풍성한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교제를 가질 때 교회는 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좋은 관계

목회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목회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교인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한 갈등 관계를 잘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 교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

오성택 목사는 교회성장 10가지 원리를 잡아라에서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 사람이 두뇌를 갖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퍼센트이지만 대인관계를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퍼센트이다.”라고 말한다.³⁵⁾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도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사랑의 관계를 말하였다.³⁶⁾ 교회가 분열되거나 어려워지는 중요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관계성의 실패라는 것이다.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요즈음은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교계 전체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 관계의 실패로 목사 자신은 물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장로교회 같으면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목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

제임스 민즈는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다음과 같은 자세나 접근 방법이 목회에서 화목한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35) 오성택, 교회성장 10가지 원리를 잡아라 (서울: 엘멘, 1999), 228.

36) 크리스티안A.슈바르츠, 자연적 교회성장, 36-37

줄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첫째는, 비대결적인 자세다. 목회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다른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기보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적인 진리문제 외에는 대결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더 미덕이됨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는, 세심한 마음이다. 성공적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교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세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투명한 자세다. 목회자에게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하며, 교인들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겸손하고 투명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비판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이다.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그리고 언제나 보면 교인들 중에는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그 비판에 대해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회자는 격분하지 말고 항상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다섯째는, 친화력이다. 목회자는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데 적합한 건전한 친화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는, 갈등을 피하는 자세다. 갈등은 가능하면 피하고 작은 일에도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를 해야 한다.

제일장로교회는 이와 같은 요소를 대체로 잘 갖추고 있다. 제일장로교회가 오늘날처럼 성장하게된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성장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2.. 교회성장의 방해 요인

교회는 성장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도 있다.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³⁸⁾ 신학적인 방해 요소와 교회적인 방해 요소, 그리고 자세적인 방해 요소가 그것이다.

37) James E. Means,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서울: 나침반사, 1998), 334-354.

38) 김연택, 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89.

가. 신학적인 방해 요소: 죄

신학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차별(약2:1-4)이 있거나 파벌이 있을 때, 혹은 교회가 윤리적인 죄를 간과할 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도 교회 안에 분파와 당파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 교회적인 방해 요소: 목회자의 지도력

목자의 모델이 전통적인 목사와 교인의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교인의 수가 70명에서 80명 정도일 때 가능하며, 숫자가 더 넘어갈 때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사역자 들을 배치하며, 훈련하며,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목회자의 지도력이다.

다. 자세적인 방해 요소: 고정관념

자세적인 방해요소란 교회에 대한 이해와 성장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웃과 불신자들 때문이며, 교회에서는 교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교인이 몇 명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세이다. 이들은 변화보다는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것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제 3 절 요약

어느 교회든지 어느 정도는 성장 요인과 방해 요소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에 있다. 이것이 목회자의 리더십이다. 목회자가 이러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회철학이 있어야 한다. 목회의 목표 즉 분명한 목회철학이 정립되어 있을 때, 목회에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한 중요하다.

목회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필자의 경험으로 봐도 자명한 일지만 21세기의 건강한 교회로 주목받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에 입각하여 사역에 정진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사실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확신하기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목회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성장의 요인은 역시 전도이다. 제일장로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정말 한인이 적은 곳이다. 그러나 제일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전도철학을 가지고 전도하기에 힘썼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막 1:38; 한글개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사역의 목적도 마땅히 전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도 가져온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왔다. 또 다른 이유는 건강한 교회에 나타난 사역의 특징은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다. 필자는 전도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건강한 교회와 전도와 의 관계를 제 5장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제 4 장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사례 연구

지금까지는 주로 건강한 교회의 이론적인 배경을 다루었다. 본 장에서는 자연적 교회성장 연구원에서 건강한 교회로 지정한 4개 교회-새들백 교회(릭 워렌 목사), 윌로우크릭 교회(빌 하이블 목사), 사랑의교회(옥한흠 목사), 휴스턴서울침례교회(최영기 목사)-의 목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절 새들백교회

1. 교회 소개

새들백 교회는 ‘건강한 교회’ 목회를 통해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다. 1980년 릭 워렌 목사에 의해 개척 시작된 새들백 교회(Saddleback Community Church)는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전도하여 교회성장을 이룬 교회로 유명하다.

릭 워렌은 처음부터 교회 성장(church growth) 보다는 건강한 교회(healthy church)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발시켰다. 그는 자신의 교회철학사역원리가 담긴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나는 21세기 교회의 핵심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라고 믿는다.”³⁹⁾고 하였다.

건강한 교회 이것이 릭 워렌 목사의 목회철학이요 사역의 소원이다. 그는 자신의 책 서론에서 새들백교회를 이렇게 부른다. “새들백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이다.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델이 되는 조건이 완전함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로부터도 배우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

3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5

다. 완전한 교회란 없기 때문이다.”⁴⁰⁾ 1980년 4월 6일 부활절에 205명이 출석하여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린 새들백교회는 15년이 지난 1999년 현재 10,000명 이상의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

2. 목회철학: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회철학을 결정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마다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다름 아닌 존재목적이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이다.⁴¹⁾ 릭 워렌 목사는 이러한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됨으로써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 새들백교회는 어떻게 자신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었는가? 릭 워렌 목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전교인 성경공부, 네 가지 질문과 대답, 교회의 목적 요약의 3 단계가 필요하다”⁴²⁾고 말한다.

전교인 성경공부란 전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공부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성경공부의 주제는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한다.

- ① 예수님의 지상사역.
- ② 교회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이해.
- ③ 신약의 초대교회 연구.
- ④ 그리스도께서 정해 놓으신 교회의 목적.

그리고 나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배우게 만든다.

- 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 ②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③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 ④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40)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84.

41) Ibid., 92-93.

42) Ibid., 112-116.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다음 그 결론에 따라 주제별로 그룹을 나누어 간단한 문장으로 교회의 목적을 요약하게 한다.

릭 워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성구가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위대한 계명”(The Great Commandment, 마 22:37-40)과 “위대한 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 28:18-20)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라”는 위대한 명령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밝혔다. 그는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⁴³⁾

첫 번째 목적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이다. 이 목적을 묘사하는 (이 목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단어는 ‘예배(worship)’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두 번째 목적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이다. 이 목적을 묘사하는 단어는 ‘사역(ministry)’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이다. 이 목적을 묘사하는 단어는 ‘전도(evangelism)’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목적은 “세례를 주라.”이다. 이 목적을 묘사하는 단어는 ‘교제(fellowship)’이다.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교제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안에 속한 소속감을 줄뿐만 아니라 한 지체됨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다섯 번째 목적은 “지키도록 가르치라.”이다. 이 목적이 가리키는 단어는 ‘제자훈련(discipleship)’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이상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워렌은 다음의 4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소속), 그들을 세우고(성숙), 훈련하고(훈

43)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2-124.

련), 보낸다(선교). 이 4단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새들백교회의 모든 관심사요 목적이다.

3. 목회철학과 전략

릭 워렌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비결은 교회 내에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조직을 세우는 것에 두고 있다. 한 예로, 릭 워렌은 18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조지 헛필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헛필드는 그의 평생에 18,000번이 넘게 설교를 했다. “위대한 각성”이라고 불리는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겨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헛필드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한마디로 사람들을 아무 조직 없이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존 웨슬리는 자신의 목적을 그의 생애가 끝난 후에도 지속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그 조직이 바로 감리교회이다. 어떠한 교회정신운동도 지속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회 안에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주의 몸인 교회에 건강을 가져온다.

새들백교회는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 개의 간단한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첫 번째는 헌신의 동심원(Concentric Circles: 다섯 개의 동심원)이고, 두 번째는 생활 계발 과정(Life Development Process, 야구의 내야 사각형)이다.

먼저, 헌신의 동심원이란 교회 외곽에 있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헌신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 성숙해지고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새들백교회는 이것을 “사람들을 지역주민에서 핵심교인으로 옮기기”라고 부른다.

① 지역주민(The Community):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나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한 불신자이다.

② 주일교인(The Crowd): 주일교인들은 주일예배참석자들이다 대부분 주일예배

44)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안양: 대한신학대학원 출판부, 1999), 257-258.

에는 참석을 하나 예배의 의미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③ 등록교인(Congregation): 등록교인은 정식 등록된 교회 원으로서 교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교회 원으로서 의무와 책임, 다른 교인들과의 원활한 교제도 있는 자이다.

④ 헌신교인(The Committed): 헌신교인은 자신의 신앙에 깊은 관심은 있으나 여러 형편상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헌신자는 경건생활, 제자훈련도 받은 훌륭한 교인들이나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일하지 않는 자이다.

⑤ 핵심교인(The Core):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헌신과 사역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다. 이들은 다른 교인들을 위해 봉사하고있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다.

교회는 이 다섯가지목적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그 각각의 목적에 대한 헌신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역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한다.

다음으로 생활 계발 과정이란 지역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일교인으로, 주일교인에서 등록교인으로, 등록교인에서 헌신교인으로, 헌신교인에서 핵심교인으로 헌신의도를 높여 가는 목회철학을 말한다.

생활 계발 과정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①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구도자가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단계로 새들백 교회에서는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② 그리스도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교인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훈련하는 단계로 이 훈련을 마치면 훈련된 교인으로 인정한다.

③ 그리스도를 섬기는 단계: 이 단계는 성숙된 교인들이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단계로 이 단계를 마치면 평신도 사역자로 인정을 받는다.

④ 그리스도를 나누는 단계: 이 단계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으며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이다.

이 목회철학은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세운 불신자전도 및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릅워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있다.

제 2 절 월로우크릭교회

1. 교회 소개

월로우크릭교회의 성장과 사역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빌 하이블 목사의 가정 배경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신앙 여정과 활동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러한 신앙활동이 목회의 철학이 되었기 때문이다. 빌 하이블 목사는 미시간 주 칼라마주(Kalamazoo)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의 교회배경은 화란계의 기독교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자녀들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교회의 교리교육과 기독교학교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교단이라는 것이다. 빌 하이블 목사가 어려서 이러한 교회에서 성장하며 훌륭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오늘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빌 하이블은, 1972년 7월 어느 날 어와나 캠프 (Camp Awana)에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빌 하이블은 어와나 캠프에서 만나 교제해오던 데이빗 홀보(David Holmbo)와 시카고의 사우스 파크 교회(South Park church, Park Ridge)에서 청소년 음악사역을 하게 된다. 이 사역은 그 후 선 컴파니 (Son Company)라는 그룹으로 발전하였고 이 사역을 통해 빌 하이블은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 모임은 후에 계속 발전하여 데이브는 음악과 드라마와 프로그램(무슨 프로그램인지)을 기획하고 빌 하이블은 영적인 리더 사역을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날 월로우크릭교회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23세에 빌 하이블은 청소년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개척 전 그는 주변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① 교회가 우리의 생활과 너무 관련이 없다, ② 교회음악 설교 등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③ 예배가 구태의연하고 지루하다, ④ 교회가 내게 죄책감을 더 가중하면서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한다 등이었다.⁴⁶⁾ 한마디로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

45)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51.

46) Paul Braoudakis, 월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1998), 83-85.

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살아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구도자들에게 적합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리고 도전적인 예배를 통해 주위의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사역으로 나온 목회철학이 곧 구도자 중심 예배이다. 그리고 그것이 윌로우크릭교회의 목회철학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목회철학: 구도자 예배

가. 윌로우크릭교회의 설립 목적

윌로우크릭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신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화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또한 교회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헌신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한다.”⁴⁸⁾라고 말하고 있다.

윌로우크릭교회는 첫째 주님을 높이고, 둘째 교인들을 교화하고, 셋째 전도하고, 넷째 사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나. 윌로우크릭교회의 사역 철학

윌로우크릭교회는 교회가 먼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교회의 우선적인 사역의 목표는 전도와 영혼구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⁴⁹⁾

첫째, 모든 신자는 전도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신자들은 구도자의 신앙에서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47)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185.

48) Ibid. 186.

49) Ibid., 296.

셋째, 구도자들이 갖는 필요들은 기존신자의 필요들과 다르다.

넷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다.

3. 주요 사역

가. 월로우크릭교회의 7단계 전략⁵⁰⁾

이 전략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전략은 비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7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를 형성함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들 개인과 성실한 관계를 세울 때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불신자들과 성실한 관계를 세우도록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2) 말로 전도함

일단 불신자들과 성실한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에게 간증을 가질 기회를 갖는다.

(3) 구도자예배에 초청함

이들을 구도자예배에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한다. 구도자예배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예배이다.

(4) 주중예배에 참여하게 한다.

예수를 영접한 초 신자 혹은 구도자예배에 출석 참여한자들은 다음 단계인 주중예배에 참여하게 한다. 이 예배를 통해 주께 더 헌신된 사람이 되어진다.

50) Paul Braoudakis, 월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105-109.

(5) 소그룹에 참여함

삶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삶의 나눔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그룹이다.

(6) 봉사하게 함

월로우크릭교회를 자신의 모교회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7) 청지기 의식

마지막은 그분이 우리의 주 가되며, 우리의 모든 것은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맡겨짐을 배우는 것이다.

나. 7단계 전략을 돕는 하부사역⁵¹⁾

하부사역은 앞의 7단계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보조 사역으로서, 월로우크릭교회의 핵심사역이다. 이 하부사역은 약 85개의 보조사역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1) 복음전도사역(1-2단계)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 받지 않았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불신자들과 관계를 갖도록 돕는다.

(2) 구도자를 위한 예배(3단계)

이 예배는 불신자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3) 기존신자를 위한 예배(4단계)

이 예배는 기존신자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설계된 주중예배이다.

51) Paul Braoudakis, 월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109-112.

(4) 소그룹 사역(5단계)

월로우크릭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소그룹은 신앙의 성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네트워크 사역(6단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임을 배운다. 이 사역은 자신이 영적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6) 청지기 사역(7단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맡아 관리하는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돕는 사역이다.

4. 교회 조직 52)

가. 신조

① 성경: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초는 성경이다.

②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영원히 계시며 각위 모두 동등한 신성한 인성을 가진 한 분이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창조, 섭리, 역사하는 분이시다.

③ 구원: 인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의 행위나 선함의 결과가 아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는다

④ 예수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제2위시며 성부께 순종의 삶을 사셨고 성자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⑤ 성령: 삼위일체 제 3위시며 구원사역을 적용하시며 죄인의 ??을 깨우쳐 주신다.

52) Paul Braoudakis, 월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124-128.

⑥ 인간의 운명: 모든 인류에게는 몸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부활과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신자는 형벌 받고 신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행한 일에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⑦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는 모든 신자들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혜가 된다.

⑧ 신앙과 실천: 성경은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이다.

나. 조직

월로우크릭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알려질 우려가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인간의 수준에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월로우크릭의 사역을 지휘한다. 그 세 그룹은 당회, 이사회, 교역자들이다.

장로들은 전반적인 보호감찰감독을 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주요한 사역의 결정과 전략적인 출선사항들을 검토한다. 이들은 지혜, 분별력, 목양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참된 길을 걸도록 보호한다. 성경은 교회에서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한은 장로들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장로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사역과 건물과 시설 등에 관한 문제들의 법적, 재정적 측면을 감독한다. 그들은 모두 시장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해서 봉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역자는 교회의 하부 사역부들에서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그들은 유급으로 일하며 사역을 이행해 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일과 중 최선을 바친다.

제 3 절 사랑의교회

1. 교회 소개

서울 사랑의교회는 1978년 7월 23일 옥한흠 목사와 함께 12명으로 시작되었다.

옥한흠 목사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훈련이다. 그는 자신이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며 제자훈련은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목회철학의 핵심이기도 한 제자훈련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그가 전도사 시절 성도교회 부임 후 대학부를 맡게 되었다. 당시 출석인원이 한 명이었는데 그 때 한 명이 방선기(현 이랜드 사목)이다. 당시 방선기는 선교단체(para-church ministry)인 네비게이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선교단체에 비해 기성교회의 대학 청년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선교단체는 기성교회가 가지지 못한 세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복음과 양육과 비전이다. 복음과 양육 비전이 세 가지가 훗날 그가 생명을 걸었던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⁵³⁾

기성교회의 비 제자훈련그룹과 제자훈련그룹과의 차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비 제자훈련	제자훈련
교리강조	복음강조
예배형식의 모임	교제형식의 모임
대그룹	소그룹
지도자중심	구성원중심
일방통행식 전달	쌍방통행식 전달
조직적 관계	유기적 관계
행사위주	양육위주

2. 목회철학: 제자훈련

목회철학이란 목회자의 교회관이다. 목회철학에서 목회의 전략과 방법이 나온다. 옥한흠목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이다.⁵⁵⁾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사명에서 그의 목회철학이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목회철학은 평신도를 깨워 제자 삼는 것이다. 평신도를 깨우

53)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30년 (서울: 두란노, 1999), 29-31.

54) 사랑의교회, 제 23기 평신도를 깨운다 교재 (서울: 평신도를 깨운다 지도자 훈련원, 1994), 주1-2.

5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0), 54.

는 일과 제자 삼는 사역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존재목적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가. 교회의 정의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고전 1:1, 2; 엡 2:19).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할 때 이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며 평신도의 교회도 아닌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교회인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는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 놓지 않고 있다.⁵⁶⁾ 이 말은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나. 교회의 존재 이유⁵⁷⁾

교회는 3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행 15:14). 그러므로 교회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엡 6:6, 12, 14).

둘째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마 28:19, 20; 행 1:8).

셋째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다. 이점은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교회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무지와 나태가 빚을 수 있는 인간속성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았다. 교회의 품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배려를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는 곳이다(엡 4:11-12).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일치하는 평신도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의 상호사역을 담당하는 평신도로서 교회 밖에서는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책임지는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켜야 한다.

5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55.

57) Ibid., 56.

다. 성경적 해답으로서의 제자훈련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 곳에 교회는 세우는 사역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될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다 그것은 ①가서 ②세례를 주고 ③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해답으로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제자 삼는 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제 4 절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1. 교회 소개

휴스턴(Houston) 서울침례교회는 1978년 2월 5일 휴스턴의 사우스 메인 웨스트몰랜드(South Main Westmoreland)에서 일곱 가정의 모임이 모여 교회 설립을 선언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한 달 후에 초대 담임목사로 이상훈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가 출범하였다. 휴스턴 대학의 포스월스 홀(Forthworth Hall)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그 해 7월에 메모리얼 드라이브 침례교회로 옮겨 예배드렸는데, 장년 63명 어린이 21명이었다.

1981년에는 현재의 교회 대지 7에이커를 구입하여 교회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와중에도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그 해 텍사스 주 콜퍼스 크리스티(Texas, Corpus Christi)와 뉴욕 주 사라코스(New York, Syracuse)에 지교회를 개척하였다. 1982년 웨스트비우 침례교회(Westview Baptist Church)로 교회를 이전하였으며 1983년 이상훈 목사가 사임하고 다음해인 1984년 6월에 김순일 목사가 부임, 새로 건축된 성전(Fairbanks-N. Houston Rd.)으로 이전하여 8월 19일 첫주일 예배를 드렸다. 9월 2일에는 성전헌당과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참빛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가정교회 목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1993년 1

월 3일 최영기 목사의 부임 후의 일이다. 최영기 목사는 생명의 삶, 경건의 삶 등의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10월에는 23개 가정교회(가정목장)를 시작하였다. 그해 출석 인원이 300명을 넘어섰고, 다음해 4월에는 400명을 돌파하였다. 목장 수련회와 제자의 삶, 교사의 삶이라는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교육관(1만2천 평방 피트, 약 330평 규모)을 신축하였다. 서울침례교회는 가정교회목회와 삶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 신앙성장은 물론 교회전체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⁵⁸⁾

2. 목회철학: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의 목회철학은 한 마디로 말해서 평신도를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즉 교회의 사역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와 더불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이런 그의 생각은 그가 평신도로 오랜 동안 지내오면서 쌓여 온 것 같다. 그는 평신도와 더불어 사역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1993년 서울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 할 때는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부임하였다.⁵⁹⁾

평신도 사역의 성공의 열쇠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추구하였는데 그 이론적 배경을 신약성서에서 전문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는 평신도 사역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든다. 첫째, 전도는 평신도 사역자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초신자의 신앙성숙을 돕는 데도 평신도가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이다.⁶⁰⁾

또한 이러한 그가 평신도 사역에 비전을 가진 것을 랄프 네이버가 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Where Do We Go from Here)라는 책을 읽은 후이다. 그 책에서 가정교회(Cell Church)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등을 상세히 배우고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다.⁶¹⁾

58)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역사 (Houston: 서울침례교회, 1998), 1-3.

5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서울: 두란노, 1999), 37.

60)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49-51.

그는 평신도 사역의 세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장년주일학교에서는 참된 사권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장년주일학교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힘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구조가 있었기에 폭발적인 성장과 진정한 성도간의 사권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즉 그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하므로 평신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인 초대 교회의 주류인 가정교회를 통하여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게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약성서의 가정교회나 중국의 처소 교회 처럼 집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⁶²⁾

3. 가정교회의 조직과 운영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를 정의하기를 “가정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구역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 하나 하나가 다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⁶³⁾라고 말한다.

가정교회는 구역보다 중국의 처소 교회와 가깝고 작은 개척교회이다. 차이가 있다면 개척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사역자를 모시지만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목사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⁶⁴⁾

가. 가정교회의 조직

세부적인 조직을 보면 맨 먼저 담임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장 그리고 큰 목자가 있다. 각 목장마다 목자가 있고, 목장 안에는 예비목자, 그리고 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가정교회는 50개의 목장으로 되어 있다.

가정교회와 기존의 구역과 다른 점은 구역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묶는 조직이지만 가정교회는 회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조직된다는 것이다. 즉 가정교회의 회

61)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32.

62) Ibid., 30-32.

63) Ibid., 19.

64) Ibid., 20-21.

원들을 ‘목원’이라고 부르고, 가정교회를 ‘목장’, 가정교회 책임자를 ‘목자’라고 부른다. 우선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장을 이끌 목자를 훈련시키고 임명하면, 교인 스스로가 목장의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문화와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지역이 같거나 특정 직업 위주로 모이거나 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개 나이 직업이 달라도 서로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인원은 6-15명으로 제한한다.⁶⁵⁾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전도와 새 신자 양육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비슷한 공통점이 없으면 사귀고 교제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새 신자 양육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새 신자를 훈련시켜서 우선적으로 목자로 세운다. 그 이유는 새신자가 오랜 기간 교회 안에 있던 기존의 성도들보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접촉점)가 많이 때문이다.⁶⁶⁾

가정교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⁶⁷⁾

① 목자: 영적 지도자이며 목장의 책임자이다. 그러므로 목장의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매주일 예배 후에 정시훈련에 참여하고 새로 나온 분들이 목장에 할당되면 그 주일에 심방하고, 가정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등록할 때까지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일주일에 5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을 3장씩 읽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목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기도한다.

② 예비목자: 예비목자는 목자를 도와 부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할 목자 후보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자는 예비목자를 목자로 양육해야 한다.

③ 교사: 목장 모임 중 20-30분의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자이다. 목자가 추천해서 목가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 임명한다.

④ 기타직책: 가능하면 교회가 해야할 일은 목원들에게 골고루 분담시킨다. 즉 선교, 홍보, 친교 담당자, 주일 출석 점검자 등이 있다.

65)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20-21.

6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74.

67) Ibid., 89-94.

나. 가정교회의 운영 방법 68)

먼저, 가정교회(목장) 모임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목장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대개는 금요일 저녁시간에 개인 집에서 모인다. 보통은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밥상공동체를 연상케 한다(행 2:42-47).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모이는 각 가정에서 한 접시씩 나누어 준비하여 모이고 식사 후에 가정교회 예배가 시작된다.

전형적인 가정교회 모임 순서를 보면 약 20-30분 동안 찬송을 부르고 약 20~30분 동안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을 나누는 생활 나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일어난 특이할 만한 사건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한마디씩 한다. 생활 나눔이 끝나면 약 20-30분 성경공부를 한다. 성경공부는 목자가 인도할 수도 있고 교사를 임명하여서 인도하도록 하기도 한다. 성경공부를 마치고 약 15분 동안 과일을 들고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방금 공부한 성경구절 중에 요절을 뽑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토의한다. 이 시간은 약 1시간인데, 서로 돕는 시간, 혹은 사역의 시간이라고 한다. 이 시간 후에는 기도제목을 나누고, 약 15분 정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전도와 선교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후에 마친다.

모임의 핵심적인 부분은 중간에 1시간에 걸친 나눔과 도움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회원들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서로 확인하고 현재 무슨 일을 당면하고 있는 지 얘기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토론한다. 가정교회에서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갈등, 자녀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노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구역과 같이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편한 사람들끼리 모임 수 있도록 편성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목원의 축하 예배는 결혼식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목자가 한다. 목장이 가정에 모이는 개체교회로 예배, 선교, 교육, 훈련, 친교 등이 이루어진다. 심방도 담임목사를 의존하지 말고 목자가 해야 한다. 목사와 목자는 동역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6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75-80.

목장마다 선교를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를 정하고 기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목장 모임의 3가지 운영 규칙이 있다. 첫째로 피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할 때에 질문이나 간증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목장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 비밀에 부친다는 것이다.⁷⁰⁾

다음으로, 합동목장 모임이 있는데, 같은 목장의 식구끼리 잘 교제하며 알고 지내지만 다른 목장 식구와는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 결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두 목장(다음 달에는 다른 목장끼리 모인다)이 함께 모인다.

목장은 개척교회와 같다. 6-15명이 모인 개척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자가 사역하면 된다. 목장 내에 모든 구성원이 사역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선교부, 친교부, 전도부 등의 교회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인데 항상 15명 이하의 교회이다. 15명이 넘을 때에는 지교회를 내어야 한다. 이것이 성장의 원리이다. 몇 안 되는 분들이 개척 교회를 할 때에 친밀감, 책임감, 열성 등이 항상 살아 역사할 수 있다. 목원이 목장을 옮길 때에는 소속 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목장 인원이 15명 정도 되면 분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참석 인원이 15명이 되면 목원 중에는 모임에서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나눔이 점점 식어진다. 둘째로 전도의 열기가 식기 때문이다. 15명 이상이면 자녀들까지 포함할 때에 적어도 30명 이상이어서 가정 목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감히 분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목장은 예비 목자에게 물려주고 기존 목자는 목장을 떠나서 새로 목장을 개척해야 한다. 분가시정이 든 목원들이 헤어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5 절 요약

이상의 네 교회를 조사 연구한 결과 이들 네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다.

69)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176.

7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23-25.

첫째,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회사역과 성장의 전문가인 라일 샬러(Lyle Schaller)는 오늘날과 같은 후기 기독교시대에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목회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⁷¹⁾ 왜 목회철학이 중요한가? 그것은 교회존재 목적과 의미가 목회철학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목회철학)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10년간 100퍼센트 이상 성장한 교회들은 모두 교인들이 교회사역의 목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10년 동안 적어도 25퍼센트 이상 감소한 교회들은 교인들이 교회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⁷²⁾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의 목회철학이 무엇이며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늘 상기하면서 선택적인 사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고유의 목회철학을 형성하고 거기에 정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밝혀졌다. 담임목사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30퍼센트, 친절함 때문이 17퍼센트, 교회행사활동이 15퍼센트, 교회의 위치가 12퍼센트, 교리가 12퍼센트, 교단과의 관계는 7퍼센트로 나타났다. 즉 담임목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⁷³⁾

앞서 살펴본 네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인데 각 교회의 목회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들백교회의 목회철학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이며, 윌로우크릭교회의 목회철학은 구도자 예배이고, 사랑의교회의 목회철학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훈련이고,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목회철학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이다.

이들 네 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불신자 전도를 들 수 있다. 1900년에 미국에는 미국인 1만 명당 27개의 교회가 있었고 1985년에는 미국인 1만 명당 12개의 교회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평균 9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한다.⁷⁴⁾

71)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192.

72) Ibid., 226.

73) Ibid., 133.

교회사역의 시작은 불신자 전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백성으로 성숙시켜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과 끝이 있다. 그만큼 불신자전도는 교회사역에서 중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네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불신자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새들백교회에서의 예배와 찬양, 메시지의 주제, 간증, 예배시간, 주차장 시설, 주보에 실린 교회지도, 교회안내표시, 편안한 좌석, 충분한 예배실 공간, 실내 온도와 조명 교회안팎의 환경, 간략한 예배순서. 이 모든 것 하나 하나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며 끊임없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세워간다.75)

월로우크릭교회에서의 중요한 목회철학 중의 하나는 불신자 전도에 두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라는 제한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신자들도 양육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처음 복음을 듣는 이들이 기존의 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예배에 처음부터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불신자들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예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개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76)

서울 사랑의교회나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이나 가정교회들도 전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관계에 기초한 전도(relational evangelism)라고 믿는다. 그들은 우선 불신자들을 가정교회 사랑방 혹은 목장에 끌어들여 사랑의 공동체를 맛보도록 한다. 그래서 목원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게 하며 이러한 호기심이 주일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성경공부도 수강하게끔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77)

이들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운영에 있다. 교회성장학자인 R.W. 네이버는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Do We Go from Here)라는 책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미국교회의

74) 김연택, 21세기 교회와 건강한 목회, 64.

75)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81-343.

76) Paul Braoudakis, 월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141-158.

7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103.

식퇴를 착잡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후 ‘왜 미국 교회가 점점 식퇴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매우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했다. “미국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그룹 모임이 미국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되고 있으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 전세계에 부흥을 가져오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주장했다.⁷⁸⁾

릭 웨렌 목사도 교회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여 하는 말이 있다. 즉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언제나 점점 커져야 하며 동시에 작아져야 한다(Our church must always be growing larger and smaller).” 그에 따르면 교회가 커진다는 의미는 주일날 전 교인이 모여 축제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교회가 작아진다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사역한다는 뜻이다. 윌로우크릭의 교회도 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의 멤버가 되도록 하는 것을 교회의 지도력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78) Ralph W. Neighbou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43.

제 5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의 전략적 요소

본 장에서는 제 3장의 교회진단과, 제 4장의 건강한 교회 사례연구를 통해서 알칸사 한인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 3장의 알칸사 제일장로교회의 내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타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적 요소는 목회자의 리더십, 즉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전도와 소그룹의 활동임을 살폈다. 동시에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네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요 특징 또한 동일한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인 요소들을 열거하고, 다음 장에서는 이 요소들을 제일장로교회에 실제 적용하고자 한다.

제 1 절 목회철학

1. 목회철학의 중요성

교회사역의 철학은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 가족의 유익,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충족시켜줄 때 사람들은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를 커다란 식당으로 비교하기도 한다. 마치 식당에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몰려오는 것과 같이 교회도 지역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이 현대식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의 예

배철편학을 그들에게 맞게 세운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게될 것이다. 반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사역을 한다면 그들에게 맞는 예배철편학을 세워야할 것이다. 미국의 교회들이 실제로 교회음악과 예배형식을 현대식으로 변경하면서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 나오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철편학에 따라 사역의 대상자들이 정해지고 교회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목회철편학을 먼저 정하고 그 사역 철편학에 따라서 목회를 해나갈 때 힘있는 목회 ,건강한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⁷⁹⁾

2. 목회철편학의 설정 과정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다 할 수는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이 생기는 이유, 또한 목회자들이 쉽게 소진하고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의 하나는 목회자들의 목회철편학이 결정되어 지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다.⁸⁰⁾ 교회 내에 목회철편학이 분명하게 주어질 때 목회자의 할 일과 교인들의 할 일이 구분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교인들은 더욱더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진다

3. 목회철편학의 핵심적 요소: 예배

가. 예배가 목회철편학에서 중요한 이유

예배가 목회철편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성경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 맥아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거듭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한다.”⁸¹⁾라고 말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요 4:22-23).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할 첫 번째 헌신이 예배이기 때문이다(롬 12:1-2). 넷째로, 건강한 교회들의 목회철편학도 예배 갱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갱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성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예배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79)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117.

80) Ibid., 236.

81) John MacArthur, 참된 예배, 한화릉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9), 11.

엘머 타운즈는 “미국에서 1990년대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예배의 갱신과 변화에 있다.”고 하였다⁸²⁾ 한국교회가 과거 전통과 보수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배를 개발 혹은 갱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의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

(1) 전통적 예배

전통적인 교회는 과거의 전통적인 예배내용과 구조, 스타일에 따라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미국 교회중 역사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교회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변화를 원치 않고 과거의 예배스타일을 고수하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2) 현대적인 예배

과거의 전통이나 의식에 매이는 것을 버리고 현대인들에게 맞는 스타일과 불신자들을 의식하며 드러지는 예배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러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4천 교회에 이른다고 한다.⁸³⁾

조지 헌터는 현대적인 예배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⁸⁴⁾

① 기호에 맞춘 조화된 예배(blended worship):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구도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예배(seeker friendly worship): 후보에 사도신경을 넣는다 든가 스크린을 사용하여 찬송가 가사를 보게 한다 든가, 예배시 부담이 없게 친절을 베푸는 예배이다.

③ 구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seeker service):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예배드리며, 현대인에게 맞는 교회음악과 메시지가 전달된다(예, 새들백교회).

④ 공연 중심의 구도자예배(high performance seeker service): 주말의 모든 예배

82)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젠틘트, 2000), 33.

83) Ibid., 74.

84) Ibid., 86-87.

가 기존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신자들을 위한 구도자 예배이다(예, 윌로우 크릭교회).

다. 구도자 예배

(1) 정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체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솔직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적인 예배이다. 이 예배는 불신자들이 교회 문화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나 종교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위해 시작된 전도 집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교회의 찬송이나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적인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음악과 드라마,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이슈들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자 예배는 교파나 전통 등에 얽매이지 않고 불신자 전도를 사역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⁸⁵⁾

(2) 예배 구성요소

구도자 예배의 구성요소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의 요소를 모두 포함 시킨 데도 있다. 윌로우크릭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구성 요소는 음악, 비디오, 무용, 드라마가 순서에 들어있다. 새들백교회는 드라마를 하지 않고, 담임목사의 설교를 강조하며, 성경말씀 중심으로 설교한다. 그랜 래피즈에 있는 갈보리교회의 구도자 예배는 간증과 드라마가 있으며, 메시지가 끝나면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⁸⁶⁾

(3) 구도자예배를 위한 준비 요소⁸⁷⁾

구도자예배를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예배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주차장

85)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99.

86) Ibid., 120-121.

87)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198-230.

이 충분해야 한다. 셋째, 교회위치와 안내가 잘 되어야 한다. 넷째, 편안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 환경과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예, 조명, 음향시설, 좌석, 교육, 온도, 유아실, 화장실 등). 여섯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음악을 선택해야 한다. 일곱째, 청중에게 맞는 설교를 택해야 한다.

(4) 구도자 예배의 한국 적용 가능성

21세기에 한국교회의 예배는 분명 변화해야 하고 또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같은 전통 예배도 있고 구도자 예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윌로우크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새들백교회의 예배사역이 적용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들백교회의 예배의 경우 성경말씀과 설교를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드라마 사역은 분명한 은사나 철학이 없는 사람이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 건강한 예배의 요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할 특권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이며, 건강한 예배일까? 그것은 예배의 목적을 이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⁸⁸⁾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교회는 자칫 예배의 격식과 형식과 경건성은 있지만, 습관적인 예배의 전통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는 예배를 교회 부흥과 성장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를 계획함으로써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최상의 준비와 내용으로 드려야 한다. 둘째, 예배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축제적인 분위기, 친절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셋째,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 교회의 경우,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 중 하나는 예배의 시간, 스타일, 프로그램

88)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249.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⁸⁹⁾

결론으로 예배의 철학은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라면 무분별하게 예배스타일을 도입하는 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잘 부합하여 소위 전통적인 현대 예배를 추구하면 21세기에는 예배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전도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복음전도를 통한 구원사역에 있다. 복음화는 이 세상에서 수행되는 목회활동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뜻인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복음전도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성장과 건강한 교회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복음전도훈련이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며, 성도의 사명이기도하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로부터 성장하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구 1000만 이상의 서울에만 7000개의 교회가 있다 또한 세계 160개 국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시아 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통계적 숫자이다.

그러나 8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이 중지되어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⁹⁰⁾ 그러나 교회성장은 결코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곧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이자 소원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한국교회가 성장한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그동안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요인들을 바탕으로 복음전도와 훈련사역을 통해서 내실 있는 질적 성장과 확장,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함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미국교회들도, 1900년대 초부터 교회유지시대, 1970년대부터 정체 혹은 쇠퇴기를 겪었으나 1975년과 1980년에 각각 개척된 윌로우크릭교회와 새들백교회는 새로운 전도사역을 통해서 21세기에 전세계 어디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89)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155-158.

90) 미주 크리스찬 신문, 2000년 3월 16일자, 1면.

여주었다.⁹¹⁾

그들의 전도사역은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그것은 주로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방법이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것은 전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불신자 전도를 통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회철학이요 교회철학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불신자들을 위한, 중심한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사역 철학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인 전도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1. 전도의 정의

전도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로버트 맥퀼킨은 전도를 정의하여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⁹²⁾라고 하였다.

성경에는 소위 “전도”(evangelism)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을 통해 전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전도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서신서에 나타난 헬라어 동사에서 전도의 의미⁹³⁾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설교하다(evangelizo: evangelizing)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예루살렘교회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찌”(행8:4)라고 하였다.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다.

91)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5.

92) Ibid., 17에서 재인용.

93) Ibid., 19-25.

나. 전파하다(kerrso: announcing)

이 단어는 전도의 전파와 또는 선포를 의미하고 있다.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행 8:5)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파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여 사람들로 복음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가르치다(didasko: teaching)

헬라어의 ‘디다스코’의 의미는 설교와 다리 구두로 가르치는 한 형태를 의미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마 4:23). 이것은 불신자로 복음을 좀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가르쳐 나가는 것을 말하며,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 증거하다(martureo: witnessing)

전도는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행 1:8)고 하셨는데 증인은 그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한다. 증인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마. 제자삼음(matheteuo: discipling)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할 때 사용하신 것이다(마 18:19). 제자를 삼는 일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도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도의 방법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오라’는 전략과 ‘가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구약에서는 주로 ‘오라’는 전략을 하나님이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하기 때문에 ‘가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수는 이 전도 전략을 사용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셨다.

전도에 있어서 내용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나 전도의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한가지 방법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가. 대형전도집회

이 전도방법은 잘 알려진 전도자가 어떤 지역에서 수일동안 대형 집회를 인도하며, 그 지역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도집회에는 특별찬양이나 간증, 기도후원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었다.⁹⁴⁾

나. 침투 전도

이 전도방법은 남미선교회의 총무인 켄 스트라칸에 의해 개발된 전도 방법으로 지역사람들에게 성경공부, 축호전도, 영상전도 등을 통해 사회 각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투전도방법은 남아연방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다. 미디어 전도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상황을 전달하기도 한다.

라. 생활 전도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 주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다.

94)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37-44.

마. 버스 전도

1970년대 미국에서 전도활동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다.

바. 초청 전도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전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도방법을 ‘행사 전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 기관 전도

교회 밖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아. 가정 전도

가족을 우선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3. 예수의 전도방법

예수님도 전도사역의 철학을 가지고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께로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능력,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전도 능력 외에도, 예수에게는 특별하신 전도의 철학이 있으셨다. 새들백교회의 워렌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좇았던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철학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⁹⁵⁾

첫째는, 불신자들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지도자들보다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 또는 ‘불신자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전도는 먼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95)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50.

오늘날 교회가 전도사역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에 찾아오는 불신자들에 대해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를 찾는 불신자들을 뜨겁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가 오늘날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교인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뜨겁게 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⁹⁶⁾

둘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다. 예수는 육신 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이 갖고있는 모든 문제를 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다(마 15:30).

예수는 무리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심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새들백교회는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고있는데, 유산하는 아내를 위한 사역,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 술과 마약중독자를 위한 사역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사역을 갖고 있다.⁹⁷⁾

셋째는, 가르치는 사역이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듣기에 즐겁고 흥미 있게 가르쳐야 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늘 가르쳤고 무리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도 사역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역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별히 가르칠 때 상대가 불신자임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불신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⁹⁸⁾

첫째는,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식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설교는 가능한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학적인 용어를 피하고 간단한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96)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53.

97) Ibid., 55.

98) Ibid., 57-63.

사용하지 않고 보통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현실성이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전하였다.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은 아무리 많이 전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넷째는, 삶과 진리를 연관시키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교적 간단하고 실제적이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결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수의 전도방법을 적용시킨다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갈 것이다.

4. 전도대상자와 전도전략⁹⁹⁾

전도할 때, 전도대상을 정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다. 전도대상자를 정하는 목적은 전도대상을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고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전도대상자가, 이방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전도대상이었다. 특별히 작은 교회는 교회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전도 대상을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 첫째는 지리적 문제이고, 둘째는 인구 적인 문제, 셋째는 문화적인 문제, 넷째는 영적인 문제이다.

가. 지리적 요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복음 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해야할 네 개의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다. 즉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도대상을 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즈음의 사람들은 거리보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99)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140

교회를 찾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인구적 문제

전도대상지역에 인구수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있는가를 아는 것은 전도전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살고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죽음이후의 삶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다. 문화적 요소

문화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이다. 교회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화를 잘 이해하면 더욱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라. 종교적인 문제

그 지역 주민들의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면 처음 전도를 어디서부터 해야될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도대상자들에 대한 전도전략은 참 중요하다. 전략 없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의 소원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전도전략과 교회성장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전도에 힘쓰는 교회이다. 전도훈련을 하는 교회, 불신자들을 찾아 전도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더 나아가 전도전략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전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선교와 전

도에 몇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 원리를 예수님의 비유의 원리로 설명하였다.¹⁰⁰⁾

첫째, 전도는 제자를 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속적인 과정인 것이다.

둘째, 적합한 토양과 적합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전도의 좋은 방법은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건강한 네 교회 역시 제각기 좋은 전도방법과 전략의 예를 제시해 준다.

가. 새들백교회

새들백교회의 톱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 초기부터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를 드리게 시작하여 지금까지 불신자들이 늘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들백교회의 목회전략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그것은 불신자 전도이다. 새들백교회가 주말예배를 신설한 것도, 음악의 스타일, 메시지 주제, 간증을 하는 것도 오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에 목표가 있다.

나. 월로우크릭교회

월로우크릭교회 사역은 불신자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¹⁰¹⁾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월로우크릭교회는 신자들에게 불신자와 우정관계를 갖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강력하게 도전한다. 이 교회는 광고도, TV도, 라디오방송 광고도 나가지 않고, 편지나 축호전도도 하지 않는다. 오직 불신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인도하는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00) C. Peter Wagner, 기독교선교 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38-40.

101) Paul Braoudakis, 월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106.

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서울침례교회 사역의 핵심 중 하나는 전도이다. 매주 모이는 목장모임에서, 또한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을 분리시킨 것이나, 성경공부를 20분 동안 짧게 하는 것이나, 목장모임에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일 모두 불신자들을 겨냥한 전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²⁾

라. 사랑의교회

서울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출발한 교회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폭발과 매년 대각성 전도 집회 등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도는 교회성장은 말 할 것도 없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공통적 요소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다 (마 28:18-20). 전도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일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한다. 제자를 삼는 것이 전도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교육과 양육이다.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제자 삼는 것 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자는 삼지 않고 제자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 삼는 일 즉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자 삼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이다

제 3 절 소그룹사역

교회가 성장하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교인들의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을 통해 교인들로 하여금 '소그룹'에 소속하여 마치 작은 교회와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그룹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를 서로 공급하고 돕는 것이다. 교인들의 취미, 연령, 지역 등을 참조하여 가정과 같은 곳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될 때 교인들은 교회를

102) 최영기, 가정교회를 세우는 평신도목회, 104.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그룹 사역이 될 것이다.¹⁰³⁾

현재 미국의 성장하고있는 소위 열린 예배(Contemporary Worship)와 주말 구도자예배(Seeker Service)를 드리고있는 교회들의 주요사역과 강조가 바로 소그룹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⁴⁾

윌로우크릭교회의 빌 하이블 목사는 전도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초신자들의 신앙양육과 동화문제 그리고 교인간의 교제와 돌봄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사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심하며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은 소그룹사역의 필요성을 깨닫고 소그룹사역을 도입한 것이다.¹⁰⁵⁾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언제나 점점 커져야 하고 동시에 점점 작아져야 한다.”¹⁰⁶⁾고 하였다. 새들백교회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수년동안 건물 없이도 소그룹사역을 통한 성년교육과 교제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이다.¹⁰⁷⁾

현재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중의 하나인 콜로라도 덴버의 뉴라이프교회(담임: 테드 헤가드)는 교회 개척한지 15년만에 교인이 10,000여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담임목사의 창조적 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역동성 있는 소그룹사역이 바로 그 교회 성장의 열쇠였다.¹⁰⁸⁾ 서울침례교회의 목장모임이나, 사랑의교회의 다락방 모임 등은 소그룹사역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1. 소그룹사역의 필요성

교회 안에 왜 소그룹사역이 필요하며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소그룹사역을 평가 할 수 있고 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03) Robert L. Bast, 새신자를 끌어라, 김명남 역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0), 37.

104)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270.

105) Ibid.

106) Ibid., 265에서 재인용.

107) Ibid., 266.

108) Dale Galloway, 뉴호프커뮤니티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9.

미국 내에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인기 있고 역량 있는 강사가 있다면 그는 칼 조지일 것이다. 그는 21세기의 교회를 대비하는 유일한 교회의 형태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모임-소그룹(Small Group)이나 셀 그룹(Cell Group) 등 여러 용어로 불려진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영적인 형성과 동화, 복음전도와 리더쉽 계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기능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본다. 소그룹은 너무 중요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그것의 촉진과 유지의 면에서 볼 때 이차적인 것에 불과하다.¹⁰⁹⁾

왜 21세기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지향하는가? 교회성장학자인 라이너(Thomas S.Rainer)는 그 현상을 몇 가지로 설명하였다.¹¹⁰⁾ 그는 먼저 소그룹 모임의 중요한 이점으로 교회공간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그룹은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공간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벗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를 심는 복음전도의 발판을 놓을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은 참여자들이 나눔을 통해 깊은 차원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역과 관계의 발전은 대부분 소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소그룹을 통해 교회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윌로우크릭교회의 소그룹사역 기술문에는 다음과 같이 소그룹 사역의 목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소그룹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며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그룹으로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¹¹¹⁾

왜 꼭 소그룹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신약성경에

109)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255.

110) Ibid., 256.

111)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272.

서 소그룹사역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지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²⁾ 예수가 12제자를 삼으신 것이 신약성경의 소그룹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막 3:14; 눅 6:12-19).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당시 교인 수에 있어서는 대형교회에 속했지만 소그룹이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세계에 전파하기에 충분한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행 2:36-47).

둘째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그룹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소그룹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일 낮 예배 위주의 생활이었다.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신앙성숙도 가져왔다. 따로 특별한 교제도 필요치 않았다. 예배 하나로 교제도, 신앙성숙도, 교육도 대신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주일 낮 예배 한번 선포되는 메시지가지고 신앙의 성숙이나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단순히 듣기만 하던 시대에서 자신을 말하고 나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는 7-8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번 가정에서 목장모임(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 치료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¹¹³⁾

무엇보다 초신자나, 교회생활에 처음부터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2. 이상적인 소그룹 모델

사회학자인 맨슬 패터슨은 인간관계의 세 가지 모형을 다룸으로써 가장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소그룹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¹¹⁴⁾ 이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이론은 왜 소그룹모임이 교회의 이상적인 성장전략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112)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272.

11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81.

114)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259-261.

가. 전형적인 타입

정상적인 인간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자신의 심리적인 시스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의 경우는 사람들 중 약 60퍼센트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형태가 소그룹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 제한적인 타입

제한적인 인간은 다만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을 자신의 심리적인 시스템 속에 포함시킨다. 이 시스템의 사람들은 약 20퍼센트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한 인간 관계를 가진다.

다. 상처받기 쉬운 타입

세 번째 유형의 인간은 이 시스템 속에서 약 4-5명 정도의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 이 시스템은 상호간에 9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의 관계를 가진다. 이 집단은 타인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그룹 원들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이런 모임은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3. 건강한 소그룹의 요건

그러면 소그룹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그룹조직을 통해 매주 약 5,000명을 목회하는 새소망교회 개척자인 데일 젤로웨이 목사는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7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¹¹⁵⁾

첫째는, 필요충족이다. 그룹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그룹 원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조지 갈렙에 의하면, 미국인의 70퍼센트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란,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 공동체의식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자신의 말을

115)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277.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성숙한 신앙형성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등이다.

둘째는, 승진이다. 이것은 일에 대한 성취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셋째는, 훈련이다. 그룹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훈련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감독이다. 감독은 모든 단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치이다.

다섯째는, 책임 소재의 구분이다. 자기가 담당한 부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섯째는, 모집의 활성화이다. 소그룹이 활성화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일곱째는, 축제이다. 소그룹이 모이는 첫날을 '슈퍼보울'하는 날처럼 대대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라는 뜻이다.

4. 건강한 소그룹의 사역내용(핵심요소)

론 니콜라스는 건강한 소그룹의 핵심적인 요소를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는다.¹¹⁶⁾ 그는 건강한 소그룹 활동에 핵심적인 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한다. 양육과 예배, 교제, 선교가 그것이다.

가. 양육

양육이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말한다.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성과 심령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양육을 위해 가능한 활동들로는 귀납적 성경공부, 독서, 토론, 성경구절암송, 말씀묵상 등이 있다.

116)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5), 36

나. 예배

예배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행위, 말씀 등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활동들로는 기도와 찬송, 시 낭송, 경건 서적 읽기 등이 있다.

다. 교제

교제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경험들을 중심으로 한 친교를 말한다. 교제의 목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활동들로는 짝기도와 서로 어려운 문제 나누기, 음식나누기, 함께 레크리에이션 하기 등이 있다.

라. 선교

선교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궁핍한(영적, 혹은 육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활동들로는 불신친구를 위해 기도하거나 가난한 사람 보살피기, 미전도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등이 있다.

5. 소그룹사역의 유익¹¹⁷⁾

소그룹조직이 형태를 갖추고 리더들이 제안된 시간과 형태 안에서 모임을 인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비록 다르기는 해도 각 그룹들이 비슷한 특징을 띠기 시작한다.

- ① 그룹원들이 긴밀해지고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 된다.
- ② 그룹원들이 성경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 ③ 그룹원들이 삶의 간증을 나누고 배우는 장소를 갖게 된다.
- ④ 그룹원들이 효과적인 일대일 보살핌을 받는다.
- ⑤ 그룹원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가르침을 주는 법을 배운다.
- ⑥ 그룹원들이 의미 있는 섬김을 위한 무한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117) Dale Galloway, 뉴호프 커뮤니티교회 이야기, 88-92.

- ⑦ 그룹원들이 위협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복음을 전파한다.
- ⑧ 소그룹은 새로운 회심 자들을 훈련시킨다.
- ⑨ 소그룹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제공한다.
- ↓ 그룹원들의 리더십이 계발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러한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¹¹⁸⁾ 먼저는, 목회자의 비전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핵심 리더들과 나누어야 한다. 둘째는, 교회 안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교회에 있는 그룹들과 자원들, 기회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교인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는, 소그룹 목회의 5년 뒤의 모습을 구상해야 한다. 여섯째는, 다루기 쉬운 단계들로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일곱째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모델그룹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덟째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는 교회다. 한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할 수 있는 목회는 소그룹 사역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21세기 바람직한 목회, 건강한 목회는 소그룹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118) Dale Galloway, 뉴호프 커뮤니티교회 이야기, 182-188.

제 6 장

건강한 교회를 목회전략의 실제적 적용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성장의 정체기를 맞고 있다. 1880년대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전도활동을 펴 온 이래로 한국교회는 줄기찬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신자의 수가 1950년대 초에 60여만 명, 1960년대 초에 130여만 명, 1970년대 초에 220여만 명, 1980년대 초에 450여만 명, 1990년대 초에 900여만 명으로, 매 10년마다 거의 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는 이 성장률이 완전히 꺾여져서 0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¹¹⁹⁾

광복 50주년 행사의 강사로 초청 받아 한국에 온 일본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혼다 고지 목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인상을 솔직하게 표현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질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¹²⁰⁾고 답변했다.

김점옥 목사는 21세기 Vision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국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경제가 몰락했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아우성 치고 있다.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교회의 헌금이 줄어 교회운영과 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게된 것이다. 또한 교회의 거품빼기라는 명목으로 교역자를 해임하고, 선교사들을 송환하는 등 일련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이다.¹²¹⁾

119) Carl F. George, 교회 성장의 한계 이렇게 돌파하라, 최예자, 유진화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6), 1.

120)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8), 391.

121)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4.

여기저기서 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때가 더 늦기 전에 21세기의 새로운 목회적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에는 목회적 대안이 꼭 이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인이 여러 가지라면 대안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알칸사 한인제일장로교회의 진단과 건강한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목회철학의 정립과 불신자 전도와 소그룹사역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 5장에서 분석 정리한 건강한 교회의 3가지 특성을 적용하여 21세기 교회성장의 전략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알칸사 한인제일장로교회의 목회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 1 절 목회철학

교회론이 교회에 대한 원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철학은 그 교회론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실 가운데 실현하여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하는 목회전략이다.

1. 왜 예배를 목회철학으로 하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관심 있는 사역은 없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예배이며,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들백교회의 톱 워렌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10대 대형 침례교회들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 교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 교회들은 10년 동안 적어도 연간 10퍼센트씩은 성장했고, 지난 10년 동안 25퍼센트씩 감소한 교회들은 예배를 사역에서 가장 효과 없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긴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¹²²⁾

예배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다양한 예배마다 그 예배의 목적을 분명

122)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151.

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예배형태

예배의식에서 형식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예배의식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할 것이다. 예배는 자유함과 의식이 상호간에 충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의식과 조직을 통해서도 역사 하신다고 믿는다. 교회 안에는 현대적인 예배를 원하는 자들과, 전통적인 예배를 원하는 자들과 또한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교인들이 있다. 예배가 너무 경건한 분위기, 지나친 위엄과 형식에 치우치게될 때 무미 건조하고 지겨운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교회는 3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예배의 형태는 아직 전통적인 예배 형태이긴 하나, 예배가 결코 지루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되기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무미 건조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참여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²³⁾

김홍전 박사는 그의 책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예배의 3대 요소를 말하면서, 첫째는, 마음이요, 둘째는, 정성이요, 셋째는 신지식이라고 하였다.¹²⁴⁾ 의식 없이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드린다. 준비 사항으로는 먼저, 설교 전에 그 날의 설교에 맞는 찬송(혹은 복음성가)을 힘있게 부른다. 다음으로 설교 후에 주신 말씀을 갖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예배의 기원은 생략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들기 쉽기 때문이다. 예배 전 찬양을 신설하였다. 컴퓨터와 대형스크린을 통해 시청각으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찬양집이나 주보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안내나 헌금위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예배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 점검은 물론, 예배 순서 순서를 평가하여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예배시간은 가능한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배 분위기는 항상 밝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한다.

123)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서울: 규장, 1997), 40.

124)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전주: 도서출판 성약, 1987), 74-90.

나. 예배와 음악

예배시간의 음악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이다.¹²⁵⁾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찬양이나 음악은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

제일장로교회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지침이 있다.¹²⁶⁾ 첫째는 가사를 떠나서라도 음악의 도덕성을 보아야 한다. 둘째는 전통적인 음악을 사용 할 것인지 현대음악을 사용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일장로교회의 음악사역자는 20대 초반으로 아직 젊은 편이다. 그래서 음악은 현대적인 스타일이며, 매우 힘있고 빠른 편이다. 곡조도 밝고 힘있는 찬양이 많은 편이다. 특별히 5명의 젊은이로 구성된 찬양 팀이 매주일 아침 예배 시작 20분전부터 뜨겁게 인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월 1회씩 전교인이 모두 찬양하여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즉 열린 예배를 시도하고 있다.

다. 예배와 기도

주일 낮 예배 시간의 대표기도는 하기에 따라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배 중에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예배는 목사가 단독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대표로 기도한다. 장로들이 주일 아침 강단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만의 특이한 예배 전통이라고 하였다.¹²⁷⁾

대표기도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준비하고(대표 기도자는 토요일새벽기도회는 꼭 참여한다) 짧게 하면(3분을 넘지 않도록 훈련)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경건 생활에 유익을 가져온다.

라. 예배와 설교

설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윌리엄 이섬(William Easum)은 “오늘날 일반 방문객들은 전체 예배에 참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하

125)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6), 44.

126)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156.

127) Ibid., 157.

였다.¹²⁸⁾ 설교는 설교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설교는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영혼의 사활과도 직결된다. 설교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며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¹²⁹⁾ 매 주일 강단에서 전해지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에 교인들은 영적인 만족과 안정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제일장로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와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주일 낮 예배는 주로 본문설교, 주제설교를 하며, 절기 때는 절기설교를 한다. 수요일예배는 성경 처음부터 차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새벽예배는 주로 헌신과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에 대해 설교한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도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보다는 쉬고 오락을 취하는 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¹³⁰⁾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1세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먼저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깊이 살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불신자 전도

본 란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 불신자 전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전반부에서는 필자가 제일장로교회에 와서 행하였던 전도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여야 할 불신자전도 계획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28) 김연택,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158.

129) Ibid., 164.

130)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277.

1. 전도 훈련의 동기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 때가 있다. 이는 분명 전도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거기에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전도의 궁극적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¹³¹⁾ 바울 사도도 전도의 동기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1)라고 하였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였다.¹³²⁾

2. 전도 훈련의 목적

전도의 훈련의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개인의 영혼구원이다. 전도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 성장과 전도는 필수 불가결 한 관계이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로부터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전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참으로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다면 전도와 훈련에 정성을 쏟기 마련이다.

셋째는, 가장 궁극적 목표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존 스토틀은 그의 책 전도하지 않는 죄의 첫 장에서 복음 전도의 동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언급했다. 전도는 영혼의 구원, 교회의 성장, 심지어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를 위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고 하겠다.¹³³⁾

3. 전도 훈련의 방법

전도는 어떤 정제적인 교회 건물이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전도이다.

131) David Watson,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18.

132) James I. Packer,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23.

133) John Stott, 전도하지 않는 죄,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3-15.

전도의 방법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에 많은 방법들이 있듯이 전도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가지 전도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도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전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³⁴⁾ 첫째는 전도 대상자의 숫자를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으로 개인 전도와 대중전도이다. 이 방법은 예수와 사도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들은 서로 잘 상호 보완해 주고 있다.

둘째는, 전도 대상자의 연령을 따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연령별 전도가 있다. 어린이 전도, 청소년 전도, 성인 전도, 노인 전도 등으로 나뉘어진다.

셋째는, 전도 대상자의 지역을 따라 구분되는 방식이 있다. 옥외전도, 옥내전도, 그리고 범위를 크게 잡아 국내 전도와 해외선교가 있다. 옥내 전도에는 가정 전도와 회당 전도와 같은 것이 있다.

넷째는, 전도의 방법이나 수단을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단순히 설교나 대화로써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바울 사도처럼 편지를 사용하는 문서 전도가 있으며 오늘날에는 잡지, 신문,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다섯째는, 복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카이퍼는 이 방식을 포괄적이라 했다. 복음전도의 주창자들은 복음전도자가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복음만을 전달 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특전도 함께 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위생시설, 의료기관, 병원, 학교, 절절한 주택, 농경기술, 건강식품의 생산, 인간관계의 있어서의 예절의 함양, 부모의 자녀 교육 등이 있다.

포괄적인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특수전도 혹은 특별전도이다. 농어촌 전도, 산업 전도, 군 복음전도, 학원전도, 병원전도, 등과 같이 특수 계층을 상대로 하는 전도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여섯째는, 전도 대상자와 대상국가의 기독교 문화의 수용정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복음전도의 방식이 있다.

134) David Watson, 복음전도, 31-49.

이상에 소개한 전도 방법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에는 복음 메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법이어야 한다.

전도에 있어서의 최상의 방법은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본래 분부하신 메시지 그대로와 그것이 야기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생과 사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희소식을 가장 충실하게 철저하게 설명하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 수 있고 그 복음이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전도의 장애

하나님의 복음사역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가 따른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음전도의 장애요소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³⁵⁾

첫째는, 종교적인 장애물이다. 예수의 복음사역에 가장 큰 방해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비종교나 이단종파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반 기독교적 국가와 문화이다. 만일 국가의 통제가 없다면 세상에는 엄청난 죄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중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전도가 국가에 의해 배척된 예는 수없이 많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정치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슬람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셋째는, 집안의 불신자들이다. 가장 심각한 장애가 여기에 있다. 예수께서도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셨다. 한 집안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은 가족들이 믿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기에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러한 장애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다.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주님은 복

135) R. B. Kuiper, 전도신학, 박수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14-221.

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복음의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전도에 힘써야 하겠다.

5. 우리 지역의 전도 전략

필자는 제일장로교회에 부임한 뒤 이 지역의 상황을 살핀 후, 지역 여건에 맞는 전도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 방법을 전도전략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목회자 자신이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곳에 한인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초이다. 필자가 이곳에 온 것이 90년대 초이니, 약 20년 전에 이곳에 한인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세워진 교회가 오래가지 못 하였다. 교회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 동안 목회자들이 지역 주민 혹은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목회자 자신의 소명의식 부족이나 목회자의 인격, 목회의 행정관리 미숙, 목회자의 성도의 상태에 대한 이해의 결핍, 목회자의 빈번한 이동 등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와 같은 상호신뢰의 부족은 결국 교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략은 목회자 자신이 지역 주민과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도 전도전략이라고 믿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호신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3-4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목회자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지역 전도에 대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전도주일의 제정이다. 우리 지역에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중의 하나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전도주일”을 시작한 것이다. 매 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전도주일”로 지켰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 주간은 낮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전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고, 예배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인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매 월 마지막 주일은 “전도주일로 지키며 그날의 설교는 항상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예수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믿

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교했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날짜: 1995년 1월30일 주일 낮 설교

본문: 계 19:19-21

제목: 지옥가지 맙시다.

1. 서론

인생에서 무섭고, 두려운 일(실패, 질병, 사고, 재난 등)을 소개한다.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실상을 소개한다.

2. 본론

(1) 지옥은 어떤 곳인가?

ㄱ.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마 3:12)

ㄴ. 유황불이 타는 곳(계 14:20)

ㄷ.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막 9:48)

(2) 누가 지옥에 가는가?

ㄱ. 예수 믿지 않는 자(요 3장)

예: 눅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3. 결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나?

ㄱ.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요 1:12)

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행 4:12)

ㄷ.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8)

이와 같이 계속적인 전도 설교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확신을 가져 왔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열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전도주일에는 특별히 전 구역이 특별 음식을 준비하였다. 우리 지역은 한국 식당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전략의 일환으로 전도주일에는 구역별로 특별히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자유롭게 식사하며 교제하게 하였다. 이 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전도의 한 몫을 하였다.

셋째는, 전도 특별 집회이다. 제일장로교회는 년 2회 이상의 특별 전도 집회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전도주일 행사는 교회 내부의 자체 행사라면, 전도 특별행사는 외부에서, 소위 유명 인사나 찬양팀을 초청하여 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행사는

계획과 예산을 정하여 실시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팀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어느 때라도 실시한다.

대표적인 특별집회의 몇 가지 예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안요한 목사 초청 전도집회; 황수관 박사초청(10월예정)

2000년: 서울 창신 교회 이병남 집사 초청 간증집회

1999년: 박종호 복음가수 초청 찬양집회

1998년: 기독교방송 새롭게 하소서 미주 순회팀 초청

1997년: 전국 대학생 미주순회 초청 찬양 및 간증집회

1996년: 러시아 찬양초청 찬양집회

이러한 특별 전도집회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지역 특성상 집회로 인해 크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출석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스스로 갖게 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넷째는, 야외 예배이다. 교회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봄(4월)과 가을(9월) 년 2회에 걸쳐 야외 예배를 실시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였다. 이날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가졌다. 예수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고 하셨다. 사람들이 가운데는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강권에 의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¹³⁶⁾ 교회는 이때를 이용하여 전도를 하였고 많은 결실을 맺었다.

다섯째는, 전도 부서의 조직이다. 제일장로교회는 전도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서 전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도위원회는 전도부, 선교부, 새신자부로 조직하였다.

전도부는 이 지역내의 전도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교회로 인도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 애경사를 관할하여 전도를 할 뿐 아니라, 모든 전도 집회를 주관하며 독려한다.

새신자부는 새로운 사람이 이 지역에 이사를 왔을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방문, 등록했을 때 그들을 적극 환영하며, 필요를 도와줌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어 이사를 지원하고 직업을 알선하고 자동차 구

136) 민경설, 전도의 다이나믹파워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117.

입 및 면허 취득을 돕고, 공항 픽업을 돕는 등 실로 이민 생활의 처음부터 정착까지를 돌보고 도와주는 것이 전도의 큰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선교부는 주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며, 선교비를 지원하며,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기타 선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부서를 조직하여 임무를 다하게 하며, 년 몇 차례 헌신예배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전도의 전략들은 이 지역 사회 불신자 전도 사역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교회는 계속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였다.

제 3 절 소그룹사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유기체요 생명체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소그룹은 몸의 각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¹³⁷⁾ 본 절에서는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소그룹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전문가인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소그룹이란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삶과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다.”¹³⁸⁾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소그룹에 필요한 두 가지 필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성장이다. 소그룹은 개인이든 교회이든 성장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친밀성이다. 소그룹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친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37) 명성훈, 교회성장 반드시 됩니다, 103.

138) Roberta Hestenes, 소그룹 성경공부, 이종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26.

2. 소그룹의 중요성

가. 성경적인 측면

예수는 세계를 향한 선교를 위해 먼저 자신의 열두 제자의 소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은 소그룹의 형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하워드 슈나이더(Howard Snyder)는 소그룹을 “교회 속의 교회”(Church in Church)라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교회 안의 교회인 소그룹이 잘 형성되고 성장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실제적인 측면

소그룹은 개인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필요, 친교와 격려에 대한 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과 용기에 대한 필요, 사랑을 주고 받고자하는 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하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한마디로 소그룹은 개인의 영적,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훌륭한 소그룹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서로 나누며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 준다.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소그룹은 다이내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제공한다.

다. 사회적인 측면

강렬한 소그룹의 경험은 20세기의 가장 의미 깊은 사회적 발견이라고 불리워져 왔다. 소그룹은 우리사회의 각 방면, 즉 교육기관이나 종교상의 각 방면으로 침투하고있습니다. 소그룹이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하게된 것은 급변하는 대중사회에서 사람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이 있는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현대인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다. 이기적인 인간관계, 경쟁관계, 개인주의가 팽배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그룹은 지속적인 관계를 제공하고 외로움을 치료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라. 교회성장의 측면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가 예외 없이 예배가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소그룹활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그룹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선교의 중요한 방편이다. 불신자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자연스럽게 초청을 받고 복음을 접할 수 있다.

소그룹은 새신자 정착에 효과적이다. 새신자들은 교회의 소그룹 조직에 속할 때 가장 잘 정착될 수 있다. 새신자들은 대예배에 참석하여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주요한 소그룹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소그룹을 운영하여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는 데일 겔로웨이(Dale Galloway)목사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이다. 겔로웨이 목사는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그룹에 대한 필요와 효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교회는 현재 485개의 셀 그룹을 가지고 있고, 모임들에 참석하는 숫자도 4,800명 가량이나 된다. 그 교회의 소그룹은 TLC 셀 그룹으로 불리는데 TLC란 Tender Loving Care의 약자로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란 뜻을 가진다. TLC 셀그룹의 세 가지 목적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다. 모든 교인들은 이 교회의 소그룹에 속해 양육을 받으면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 교회에서 소그룹은 역동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교회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원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은 소그룹 모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그룹을 개발해야 한다. 제일장로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모든 조직을 소그룹으로 새롭게 재편성하였다.

3. 소그룹의 전략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의 소그룹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 소그룹의 목적

우리가 갖는 소그룹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소그룹을 통해 각 개인이 영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나. 소그룹의 약정

훌륭한 소그룹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운영지침을 정하였다. 첫째, 모든 소그룹마다 방향(목적)을 정한다. 예를 들면 기도그룹의 경우 교회를 위해 영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임의 크기는 6명에서 12명으로 하며, 모임의 시간과 빈도를 정하고,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헌신할 것을 서약하게 한다. 약정이 정해지면, 자신의 헌신을 위해 서약에 서명하게 한다.

다. 지도자 훈련¹³⁹⁾

소그룹의 성패는 그 그룹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소그룹 지도자는 예수그리스도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고 긍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제일장로교회는 아래의 네 가지 원리를 따라 소그룹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있다. 먼저는 기도하게 한다. 소그룹 지도자는 그룹의 결정에 대한 지혜, 그룹에서의 자신의 역할, 각각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한다.

둘째는, 준비하게 한다. 소그룹지도자는 모임을 위한 환경, 모임, 계획, 모임에서의 질문들, 또한 도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게 한다.

셋째는, 인도하게 한다. 소그룹 지도자는 시간의 사용, 모임과 토론의 흐름,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잘 인도하게 해야 한다.

넷째는, 돌보는 일을 하게 한다. 소그룹 지도자는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은 멤버들을 감싸주고, 모임후의 후속조치를 잘 하게 한다.

라. 소그룹의 조직

제일장로교회의 소그룹 조직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라 분류 조직하였다.

139) 명성훈, 교회성장 반드시 됩니다, 117.

(1) 예배

예배를 위한 소그룹은 예전부, 안내부, 찬양팀 등이 있으며, 모든 예배를 주관하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소그룹은 지도자 1명과 8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며,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헌금을 수집하고 성경, 찬송을 비치하고, 강단미화나 냉난방, 마이크 설치, 및 성례식, 장례식, 결혼식, 환갑, 개업 예배 등의 각종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2) 봉사

봉사를 위한 소그룹으로는 미화부와 친교부 등이 있으며, 봉사를 통해 회원간의 교제 및 교회의 존재목적인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도자 1명과 8명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안밖의 청소 및 실내환경 정리 정돈, 매주 일요일 전교인 식사담당, 교회 내 특별 활동시(부흥회, 각종잔치, 수련회등) 모든 봉사를 지원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3) 전도

전도를 위한 소그룹으로는 새신자사역부와 전도부, 선교부 등이 있으며, 새신자 관리 및 복음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도자 1명과 8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며, 전도대상자 발굴, 교인들의 전도 사명 고취 및 훈련, 각종 전도 행사 주관, 새 교우 인사, 환영(월1회 환영모임 주관, 각 구역에 소속하게 인도함), 결석자 심방, 후보보내기, 전화걸기, 국내외선교사지원, 각종 홍보활동, 선교 편지 게시판에 게시 하는 일 등을 그 임무로 한다.

(4) 교제

교제를 위한 소그룹으로는 접대부, 환영부, 기도부, 친목회 등이 있으며, 교회 내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도자 1명과 8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며, 새신자 식사 대접, 교회내의 환자 및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연령별 혹은 구역별로 모여 친교하며 교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5) 제자훈련

훈련을 위한 소그룹으로는 새신자반, 구역장교육, 성경공부반, 제자훈련반 등이 있으며,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도자 1명과 8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며, 성경심층연구와 토론,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마. 소그룹의 운영 원리¹⁴⁰⁾

첫째,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눔(Sharing)이 있어야 한다. 즉 회원상호간에 자신의 언어로 신앙의 체험이나 간증, 교훈 등을 나누는 것이다. 한 사람이 모임 속에서 많이 나눌수록 모임의 일원이라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이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소그룹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소속된 조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 특별히 소그룹의 지도자는 주관자가 아니라 항상 안내자가 되어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셋째,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의 의견과 질문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한 모임 안에서 어떠한 의사라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의견이 논쟁이 되는 토론은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중요한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서로를 세워 주라(롬 14:19).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서로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한 팀이다. 우리는 서로 건전한 자존심을 세워 주기를 원한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랑으로 인도해야 한다. 사랑과 관용, 용서를 소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함으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도록 한다.

일곱째, 문제의 사람은 모임에서가 아니라 일대일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모임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40) Dale Galaway, 뉴호프 커뮤니티교회 이야기, 93-104.

여덟 번째, 새로운 사람을 환대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소그룹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고 적응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아홉 번째, 소그룹 안에서 여유 있고 유머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리더의 유머감각은 소그룹의 분위기를 환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열 번째, 리더는 그리스도께서 소그룹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 7 장

결 론

제 1 절 논문의 요약

본 논문을 통해서 새 천년 21세기 새로운 교회성장의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목회를 계획하고 제시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며 교인의 급성장으로 건물과 집회가 대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교회가 교회의 본래적 기능 즉 교회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한 채 너무 성장 위주의 목회와 대형화를 선호한데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시 성장 할 수 없는가? 또한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무엇인가? 많은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여 새로운 도전을 주는 교회들이 있다. 이름하여 ‘건강한 교회’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교회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질적 성장은 물론 양적 성장 까지도 가져왔다.

제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이론적 연구를 위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 학자, 목회자들의 견해와 특별히 N.C.D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을 밝혔다.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론을 종합하였을 때 목회자의 지도력 즉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불신자에 대한 끊임없는 전도가 있는 교회이며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 소그룹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로 나타났다. 이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며 교회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제 3장에서는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의 내외적 상황을 진단하였다. 외적상황을 보았을 때 한인들이 적은 지역으로 교회의 수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안에서의 좋은 교제, 불신자에 대한 끊임없는 전도, 말씀중심의 장기 목회가 우리교회를 성장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는 성장요인뿐 아니라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러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는 분명한 목회철학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

제 4장에서는 자연적 교회 성장연구원에서 건강한 교회로 지정된 네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3장까지의 논의가 건강한 교회의 이론적인 근거를 찾는 작업이었다면 4장은 건강한 교회의 실제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네 교회를 통해서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네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이 세 가지로 발견되었다. 첫째는, 목회자의 목회철학 둘째는 불신자전도, 셋째는 소그룹사역이었다. 이러한 사역은 교회의 양적 성장은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되어 21세기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제 3장의 교회진단과 제 4장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일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제 6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건강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실제로 얻어진 것을 토대로 하여 알칸사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목회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성과 및 유익

필자는 건강한 교회론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 먼저는, 분명한 목회관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분명한 목회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세미나를 참여하곤 하였는데 그 순간 자극은 되나 필자 본인의 목회철학으로 체질화시키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논문을 완성하면서 분명한 목회철학을 정리하게 되었다.

둘째로, 보람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소원은 교회성장

이다. 그러나 우리지역 같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작은 지역의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낙심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삼고 그에 보람을 느끼며 목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론에 대해 연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 역시 없지 않았다. 먼저는, 이와 같은 연구가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 실례로 든 건강한 교회들은 지금은 이미 대형교회로 성장된 교회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가령 예산, 시설, 인력수급 등에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철학, 즉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므로 목회자 자신이 흔들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 절 제안

지금까지 연구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이론'의 적용을 통한 건강한 교회가 21세기 새로운 목회 모델임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 사역들이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자하는 분명한 소원(목회철학)을 가져야 한다.

둘째, 목회자 자신이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한다(불신자전도).

셋째,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방법론을 개발하여야한다(소그룹사역).

21세기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시대이다. 오늘날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늘날 교회가 앓고있는 중병을 치료하며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교회성장 일변도에서 이제는 목회자의 의식을 바꾸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건강한 교회,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목회 모델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서울: 규장, 1997.
- 김명혁. 한국교회 생점진단. 서울: 규장, 1999.
- 김연택. 21세기 목회와 건강한 교회. 안양: 대한신학대학원, 1999.
- _____. 21세기 전도와 건강한 교회. 안양: 대한신학대학원, 1999.
- _____.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 _____. 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_____. 한국교회 목회자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 김의종. 릭 웨렌의 설교분석리포트.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1999.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성약, 1987.
- 명성훈. 부흥뱅크. 서울: 규장, 1999.
- _____. 교회 성장 반드시 됩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7.
-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서울: 도서출판, 1999.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 오성택. 교회성장 10가지 원리를 잡아라. 서울: 엘맨, 1999.
- 오정현. 패스 파인더. 서울: 두란노, 1999.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90.
- _____. 제자훈련 열정 30년. 서울: 두란노, 1999.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조용기. 교회성장 진정 원하십니까?. 서울: 서울서적, 1996.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최혁순. 미국여행. 서울: 을지출판사, 1990.

2. 번역 서적

- Anderson, Leith. 21세기를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8.
- Barna, George. 교회성장의침체를극복하라.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 Bast, Robert L. 새신자를 끌어라. 김명남 역. 서울: 바나바교육원, 2000.
- Braoudakis, Paul. 윌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1998.
- Berkhof, Louis. 기독교신학개론. 신복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_____. 조직신학. Vol. 6. 교회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 Callahan, Kennon L. 성숙한 교회의 12가지 열쇠. 권오서 역. 서울: 풍만, 1988.
- Cliton, J. Robert.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 Conn, Harvie M. 영원한 말씀과 변천하는 세상.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Engle, Paul E. 당신의 예배생활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정광욱 역. 서울: 나침반사, 1987.
- Erickson, Millard J. 복음주의 조직신학.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Galloway, Dale. 뉴호프 커뮤니티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George, Carl F.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_____. 교회성장 한계 이렇게 돌파하라. 최예자, 유진화 역. 서울: 프리셉트, 1996.
- Getz, Gene A.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양승헌 역. 서울: 디모데, 1998.
- _____. 현대교회 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 Hemphill, Ken. 안디옥 이펙트. 이명희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Hestenes, Roberta. 소그룹성경공부. 이종록 역. 서울: 두란노, 1994.
- Jefferson, Charles E.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김점옥 역. 서울: 예맨, 1995.
- Kuiper, R. B. 전도신학. 박수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Logan, Robert. “자연교회 성장론.” 강의안, 풀러신학대학원, 2000.
- MacArthur, John.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9.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Michel, Green. 초대교회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Murren, Duck.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김기영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5.
- Neighbour, Ralph W. 셀목회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 Nicholas, Ron.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Packer, J. I.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태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tott, John. 전도하지 않는 죄.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Wanger, C. Pet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_____. 건강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 서울: 서로사랑, 1997.
- _____. “교회성장학.” 강의안, 풀러신학교. 1997.
- _____.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_____.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요한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86.
- _____.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Watson, David.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Vita of
Choon Bae Park

Present Position:

Director of the Doctor of Ministry Program
Theological Mentor for Doctor of Ministry Studies
Assistant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91182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22, 1957
Marital Status: Married to Jong Mee Park
Home Address: 16821 Delia Ave. Torrance CA 90504
Phones: (310) 329-6065
Denominati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Oct. 1991, Kang Nam Presbytery in Seoul, Korea

Education:

B. A. Dong Kuk University, Seoul, Korea, 1983
M. Div. Hap Hong Theological Seminary, Suwon, Korea, 1990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2

Personal Experience:

3/1986 to 3/1989 Youth minister of Sae Gil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3/1989 to 3/1992 Associate pastor of the Eun Kok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4/1992 to 4/1993 Education pastor of the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U.S.A.)
5/1993 to 12/2001 Senior pastor of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rkansas (U.S.A.)